

제 3장 경찰과 치안활동



1절 고성경찰서 연혁

1945. 10. 21.	국립경찰 창설
1945. 11. 13.	신임 신용주 경찰서장, 경찰관 24명을 대동하고 부임
1946. 4. 6.	제7관구경찰청 제21구 경찰서로 명칭변경
1946. 10. 1.	동해지서 관내 내산출장소, 하일지서 관내 춘암출장소 신설
1947. 6. 3.	하일지서 관내 춘암출장소 폐지
1948. 3. 9.	고성 39 폭동사건 발생 (거류삼산·하일·하이대가·상리·개천지서 피습)
1949. 2. 28	고성경찰서로 명칭환원
1950. 8. 6.	6. 25동란으로 청사 소실
1950. 9. 24.	고성읍 성내동 24 적산가옥(朴順鳳商店)을 가청사로 사용
1955. 6. 12.	6. 25당시 소실된 청사 補修 이전
1957. 10. 5.	동해지서 관내 내산출장소 폐지
1960. 7. 30.	5대 민의원 선거 개표소인 군청이 피습되고, 경찰서 피습 점거.
1965. 9. 29.	저축증강대회에서 도내 2위
1967. 2. 15.	1966년도 지방행정 실적 종합심사결과 실적우수로 내무부장관 표창(상패)
1967. 6. 16.	6. 8 선거무효 데모사건 발생
1969. 6. 27.	125 전투경찰중대 하일 지서관내에 주둔
1970. 4. 25.	동해지서 청사 신축 준공
1970. 6. 3.	거류지서 청사 신축 준공
1970. 12. 26.	경찰서 청사 신축 준공(고성읍 성내리, 고성군청자리)
1972. 12. 28.	하이지서 청사 신축 준공
1973. 3. 31.	하이면 신흥리에 125전경대 위치
1975. 1. 30.	삼산면 미룡리에 122전경대 위치
1976. 6. 10.	전투 예비군중대 장비고 신축 (준공: 1976. 4. 30. 총공사비 1,260,000원-방위성금)
1976. 7. 22.	경찰타격대 및 숙직자 대기실 신축 (준공: 1976. 6. 9. 공사비: 70만원-도지원금)
1976. 8. 22.	삼산면 두포리 포교신고소 설치
1976. 9. 1.	상리면 무선리 무선중계소(수태산) 폐쇄

1977. 12. 24	대가지서 위치변경(송계리→유흥리)
1983. 02. 20.	경찰관서 관할구역 조정 (대통령령 제11027호, 경남도규칙 제1299호) 1. 개천지서 관할 나선리 선동이 구만지서 관할 2. 삼산지서 관할 이당리, 대독리가 성내파출소 관할
1984. 9. 21.	동해지서 직원관사 준공
1984. 10. 1.	706 전투경찰대 해제(군부대 인계)
1985. 3. 20.	영오지서 신축
1985. 6. 24.	영현지서 신축
1986. 1. 15.	경찰서 숙직실, 창고 신축
1987. 1. 9.	삼산지서 신축
1988. 1. 26.	상리지서 신축(국비 3,600만원) 삼산지서 하촌 어신신고소 설치
1989. 1. 19.	관내 어선 신고소를 해양경찰대에 이관
1990. 3. 16.	하일지서 청사 준공
1990. 5. 1.	무궁화 장학회 창립
1990. 7. 4.	고성라이온스-전의경 자매결연
1991. 12. 31.	경찰서장 관사 신축준공(대지34평, 건평 23.1평 공사비 2,765만원) 마암지서 준공(대지 202평, 건평 40평)
1992. 12. 24.	회화검문소 준공(대지 22평, 2층 슬래브)
1994. 11. 30.	개천지서 개축 준공(건평 40평)
1995. 1. 27.	경찰관서 명칭변경(지서 ⇒ 파출소) <경남지방청 훈령 제42호>
1995. 11. 29.	구만파출소 청사 개축 준공(건평 40평)
1995. 12. 1.	동해파출소 청사 개축 준공(건평 40평)
1995. 12. 27.	회화출소 청사 개축 준공(건평 40평)
1996. 11. 5.	성내파출소 청사 개축 준공(건평 50평)
1997. 1. 17.	현 고성경찰서 청사 기공식(남천종합건설)
1997. 12. 12.	거류파출소 청사 개축 준공(건평 40평)
1997. 12. 13.	대가파출소 청사 개축 준공(건평 40평)

1998. 2. 10.	현 고성경찰서 청사 이전 개축 준공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57-2(대지 2,920평, 건평 1,000평)
1999. 12. 8.	14개 파출소 2부제 근무 전면 시행
2000. 6. 1.	구만, 개천파출소를 분소로 전환
2003. 10. 15.	12개 파출소 2개 분소, 권역별 4대 지구대로 기구개편 성내지구대(성내·대가·삼산), 회화지구대(회화·거류·동해·구만), 하이지구대(하이·하일·상리), 영오지구대(영오·마암·영현·개천)
2004. 1. 1.	방법기능 명칭변경(방법계→생활안전계)
2005. 10. 1.	거류치안센터를 파출소 시범체제 운영
2005. 11. 16.	회화지구대 동해치안센터를 파출소 시범체제 운영
2006. 11. 16.	회화거류동해 파출소를 시범체제에서 파출소 체제로 운영
2006. 11. 29.	회화파출소를 회화지구대로 개편(4지구대 2파출소 8치안센터)
2006. 12. 1.	관할구역변경(마암면을 회화지구대로 변경) 개천분소 개천치안센터, 구만분소 구만치안센터로 개편
2007. 10. 12.	상황실 CCTV관제 개시 (2007. 10. 11. 관내 3개소 6대 방법용 CCTV설치)
2008. 3. 12.	고성군지역치안협의회 출범식 개최(19개 기관·단체)
2009. 8. 3.	하이파출소 CCTV관제소 설치
2009. 9. 24.	영오지구대 증축공사 완료(사무실 227㎡)
2009. 10. 5.	상리치안센터를 상리파출소로 명칭변경
2009. 10. 6.	하이지구대를 하이파출소로 개편
2009. 10. 6.	영오지구대를 영오파출소로 개편(관할구역 영오·개천면) (영현면을 상리파출소로 변경)
2009. 11. 2.	CSI 증거분석실 개소(112타격대 건물 2층)
2010. 5. 1.	회화지구대에서 회화파출소로 개편
2010. 11. 25.	고성경찰서 별관(늘푸른관) 준공
2011. 1. 26.	성내지구대를 공룡지구대로 명칭변경(신축 준공)
2012. 5. 21.	112신고접수 지방청으로 통합 접수
2013. 3. 28.	경리계 장비업무를 경무계로 이관(정보화장비)
2013. 6. 14.	상리파출소 증축 공사 완료(140.37㎡)
2013. 11. 20.	여성청소년계 신설(경찰청과 그소속기관 직제개정) <여성청소년계 정원 5명, 경찰서 146명에서 148명으로 증원>

2절 고성경찰사 개관

1. 대한제국과 그 이전의 경찰

우리나라의 경찰기능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행정부문에 포함되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의금부(義禁府)와 5위(五衛)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대 경찰이 성립되고 경찰사무가 타(他) 관청으로부터 분리 집행하게 된 것은 1800년대 조선 헌종 때인 1835년부터로 이때 중앙에는 포도청, 지방에는 도감사(道監司 : 관찰사)로 치안을 담당케 하였다.

1894년 6월 25일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 경무청(警務廳)을 창설하고, 지방에는 관찰사가 경찰권을 장악하여 관찰청 밑에 경찰서를 두고 각 군(郡)의 경찰권은 군수(郡守)에게 속하게 하였다.

1907년에는 내부(內部)에 경무국을 두고 지방에는 관찰사 소속하에 경찰서와 경찰분서, 분파소를 두어 경찰업무를 수행했다.

2. 일제강점기 경찰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이른바 ‘한일합방 조인’ 을 앞두고, 6월 24일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박탈하였다. 당시 고성에는 사천헌병대 고성분견소를 설치하고 헌병오장 ‘세기하라(岡原)’ 이하 8명이 주재하여 경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각 면에 헌병출장소나 경찰주재소를 점차적으로 설립하여 나갔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이후 일제는 고성경찰서를 발족¹⁾하고 헌병대로부터 경찰권을 인수하여 일제행정(日帝行政)의 첨병역할을 담당시켰다.

주요 연표(年表)

1910년대

- 1910. 일본 헌병오장 세기하라 [岡原] 외 8명이 주둔하여 경찰권 행사
- 1911. 포도면(현 동해면) 장좌리 우두포에 경찰 주재소 설치
- 1911. 10.영오면 오서리 서당에 임시 주재소 설립 (일본 순사부장 福山 외 직원 2명)

1) 1919년 6월 20일 발족 추정

- 1913. 8. 상리면 오산리에 목조건물로 상리 경찰관주재소 발족
- 1913. 8. 13 하이면 덕호리에 하이 경찰관주재소 발족
- 1913. 10. 대가면 송계리 이덕권 家에 일본헌병대 대가헌병분견소 발족
- 1914. 4.5삼산면 삼산경찰관주재소 발족
- 1914. 8. 27 회화면 배둔리 448번지에 사천헌병분대(泗川憲兵分隊) 고성분견소(固城分遣所) 배둔역출장소 설치
일본헌병대 고성분견소 개천출장소 설치
- 1915. 거류면 경찰관주재소 발족
- 1915. 마암면 장산리 153-3번지 일제 주재소 설치
- 1919. 6. 20배둔역출장소를 고성경찰서 배둔역경찰관주재소로 개칭
개천출장소를 고성경찰서 경찰관주재소로 승격

1920년대

- 1920. 9. 구만면 연화리 당산부락에 경찰관주재소 건립, 일본인 순사부장 삼원의방 외 1명
- 1920. 10. 1삼산면 병산리 64번지에 삼산면주재소 건립
- 1921. 12 영현면 사무소에 영현헌병분견대 발족
- 1922. 10. 5 영현면 침점리 355번지에 영현 경찰관주재소 신축
일본경찰 2명 주재
- 1923. 10. 1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788-1번지에 대가주재소 신축

1930년대

- 1931. 11 하일면 학림리 348의 3번지에 하일주재소 신축
- 1933. 5. 1 삼산면 병산리 218의 2번지 대지 172평에 삼산주재소 이전 건립

1940년대

- 1945. 7. 20 내산리 내신출장소를 폐쇄하고 동해면 장기리 362-2 번지에 동해주재소를 설치

3. 미군정시대 경찰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함께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게 되고 9월 8일 미군이 대한민국에 상주함과 동시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때는 일시적으로 기존기구를 활용

하여 전후(戰後) 치안을 확보하였다. 10월 21일에 미 군정청은 경무국을 창설하여 본격적인 경찰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날을 국립경찰 창립기념일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고성에는 당시의 경찰서장 일본인 ‘이시이 요시오(石井義雄)’가 부하 20여 명 및 군인 약간 명과 함께 계속 잔류 중이었다. 관내가 무(無)경찰 상태에 빠지자 군내 각지에서 조직된 인민위원회가 각 관공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때 인민위원회 보안부장인 이용규(李龍奎)가 부하 20명과 함께 고성경찰서를 접수하였다. 동시에 잔류 중이던 일본인 관리 및 군인을 구속하고 ‘고성보안서’라는 명칭아래 소위 보안서장의 직에 취임하여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일본 경찰은 9월 27일 철수하였다.

군정청 경무국이 발족하자 11월 13일, 신영주(辛泳柱) 경감이 부하 경찰관 24명을 대동하고 초대 고성경찰서장으로 부임하여 보안서원을 철수시키고 경찰관을 차차 증원시켜 관내 치안을 유지해 나갔다.

이후 12월 31일까지 72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었으며, 조직 편제는 경무계, 회계계, 보안계, 사법계, 위생계, 정보계, 직할외근으로 운영되었다. 13개 면에 주재소를 두고 동해주 재소에는 장좌출장소를 운영하였다.

1946년 4월 6일 고성경찰서는 제7관구경찰청 제21구 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시기 고성에는 남로당 지하조직이 고성군책을 중심으로 읍면책과 각 마을 단위 세책까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우익에서는 대한독립촉성 국민회, 민보단이 조직되어 좌익에 대항해 나갔다.

1948년 3월 9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2개월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좌익 및 동조세력에 의해 폭동이 발생했다. 이때 관내 8개 지서가 일제히 습격당하고 경찰관 4명이 순직했다.

주요 연표(年表)

1945년

- 11. 13 신영주 경감 선발대 24명과 함께 고성경찰서장 부임
- 12. 31 현재 조직운영, 경찰관 72명(경부 1, 경부보 1, 순사부장 10, 순사 60명), 6개 계(경무계, 회계계, 보안계, 사법계, 위생계, 정보계) 직할외근(고성읍 지역의 외근업무 담당) 및 13개 주재소, 1개 출장소

1946년

- 7. 6 호열자(虎列刺:콜레라)가 하이면에 첫 발생하여 거류, 마암, 개천(介川) 등 각

면에 만연되어 총 발생 환자수 670명, 사망자 수 385명이었으며, 9월 15일경에는 완전히 종식

- 10. 4 21:00경 동해면 부면장 家를 좌익 약 50명이 습격, 가재도구 약 3만 원 가량을 파괴 도주
- 10. 15 조병옥 경무부장이 전국적으로 파급된 폭동사건 수습방책을 발표하여, 10월 3일 이후 좌익세력이 통영·고성을 비롯한 마산, 진주 7개 부군읍면 등관공서를 습격, 건물파괴, 무기탈취, 구타 살상 등의 폭거에 대한 자제호소

1947년

- 6. 3 23:00경 고성읍 성내동에서 좌우익 충돌 중상자 2명을 내었음
- 6. 6 23:00경 영오면 좌익 약 70명이 영오지서를 습격, 지서 비품과 건조물을 파괴 약 35만원의 피해 발생
- 6. 16 22:00경 좌익간부 15명이 부락민을 선동, 하곡수집을 방해하는 동시에 경비선을 절단하고 지서를 습격하여 서류사무용품 등을 파괴하는 외에 현금 900원을 절취, 경찰에서는 응원대를 출동, 혐의자 200여 명을 검거
- 7. 4 회화면 배둔리에서 소위 좌익진영 이○○ 외 40명은 자칭 ‘테로단’ 방지라는 명목하에 자위대를 조직하여 집단적 시위를 감행, 즉창으로써 경찰관 1명에게 중상을 가하고, 총기 1정을 탈취하여 강력한 시위를 감행하여, 대한독립촉성회 배둔지부 간부 허○○을 탈취한 총기로써 사살
- 7. 27 좌익의 선동으로 ‘미소공위(美蘇共委)축하대회’ 라는 미명하에 각면 농민 5만 명을 운집케 하여 일대시위 운동을 감행
- 8. 12 마암면 좌우익이 충돌하여 소요가 발생, 좌익 수십 명은 재차 지서를 포위 습격 함으로 부득이 발포, 좌익 부락 세책(細責) 허○○ 피살됨

1948년

- 2. 8 22:00경 하일면 오방리 후산(後山)을 위시한 관내 11개소에서 일제 함성과 함께 봉화 데모를 감행
- 3. 9 고성폭동사건²⁾
오전 0시 20분을 기하여 좌익 폭도가 관내 8개 지서를 일제 습격, 건물 방화, 경찰관 살해 등을 자행한 중대 사건으로,

2) 제21구경찰서 경찰연혁사(1948년 4월경 기록)

1) 개천지서 관내

남로당 군본부 責 심○○ 지휘하에 폭도 약 50명은 죽창·곤봉 등을 각각 소지 지서경비력이 박약함을 기회로 지서를 습격 경찰관을 살해할 목적으로 남로당 개천면책 김○○지휘하 同 3月 9日 오전 0시 20분 지서를 급습 경비 중인 지서주임 경사 박양식(朴亮植) 순경 박삼태(朴三泰)를 난타 중상케 하고, 총기를 탈취 지서건물과 문서를 파괴 소각한 후, 지서 직원 순경 김영규(金榮圭) 동 박강평(朴岡平) 양명(兩名)이 부득이 피신함을 발견 포박하여 탈취한 총기로서 사살(射殺)함

2) 당동지서 관내

역시 동일한 지령으로 거류면책 허○○의 지휘하에 죽봉과 도검을 소지한 폭도 약 120명은 동일 0시 15분경 경비력이 약함을 기회로 지서를 포위 급습 청사 내에 침입하여 건물 문서 등을 파괴 소각하고 청사내를 수색함으로 숙직실에서 대기 중인 직원 2명이 대항 발포하였으나 불굴(不屈) 계속하여 면사무소에 침입 문서 일부를 소각하고 지서 주임과 직원 숙소를 습격하여 건물, 의류 등 일체(一切) 파괴 소각

3) 삼산지서 관내

역시 동일한 지령으로 삼산면책 이○○은 부민(部民)을 선동하여 죽창, 도검 등을 소지 동일 오전 0시 30분 폭도 약 30명이 작군(作群)대기 중 경비력이 박약함을 기회로 서내에 침입 무기고를 습격 총기를 탈취 사무실을 파괴하여 강력 대항하는 지서 주임 경사 채충순(蔡忠順)을 죽창(竹槍)으로 살해함

4) 하일지서 관내

동일한 지령과 목적으로 하일면책(下一面責) 최○○은 부민을 선동 지휘하에 지서습격부대, 전선절단부대, 경찰관사습격부대, 도로파괴부대로 각각 조직한 후 동일 오전 0시 30분경 곤봉·죽창·포승 등을 소지한 폭도 약 60명과 지서주임 사택에 침입, 동 경사 김선수(金善洙)를 급습 포박한 후 총기를 탈취 사택에 감금하여 놓고 2명으로 하여금 감시케 한 후 여세(餘勢)는 지서를 습격할라 하였으나 경비원의 발포 대항에 목적을 달(達)치 못하고, 김경사를 난타 중상케 한 후 도주하였는데, 제1차에 목적을 달(達)치 못한 거등(渠等)은 제2차에 목적을 달하려고, 3月 11日 오후 9시 30분경, 前 탈취하여 간 총기 4정과 폭도 약 100명으로 장비 발포 습격하여 왔으나, 지서원의 강력한 대항으로 격퇴시켰는데, 아방(我

方) 순경 안교윤(安敎允)은 족부(足部)관통의 총상을 受하였으며, 폭도는 계속하여 쫓(익) 12일 오후 10시경 또 습격하여 왔으나, 아방의 강력한 대항으로 격퇴시켰음

5) 하이지서 관내

동일한 지령하에 同日 오전 0시경에 중선도로(中線道路)를 절단한 후 죽창, 곤봉을 소지한 폭도 약 200명이 지서를 급습할 계획으로 경비 중인 지서주임 경사 구세운(具世運)에게 평소 친면(親面)한 면서기(面書記)를 놀러온 것처럼 가장 파견 잡담케 한 후, 기회를 이용 불의에 지서를 습격 무기고 내에 있는 총기를 탈취, 청사와 문서일체를 파괴소각하고 주임과 직원 관사를 습격 주임 생활도구 일체를 파괴하고 사택에서 휴식 중인 순경 이규섭(李圭燮)의 두부에 발포 즉사케 한 후 순경 손재수(孫在洙)를 납치 도주함

6) 배둔지서 관내

역시 동일한 지령 목적으로 면책(面責) 권○○ 지휘하에 곤봉·죽창 등을 소지한 폭도 약 30명은 동일 오전 0시 30분경에 지서를 포위한 후, 선발대 1명이 지서에 방화할 목적으로 도화선 뇌관을 지서 내에 설치함을 경비원이 발견 즉시 대항한 결과 폭도는 하등 목적도 달치 못하고 도주함

7) 대가지서 관내

동일한 군책 지령으로 면책 허○○은 부민(部民)을 선동 죽창·곤봉을 소지케 한 폭도 약 30명을 인솔 중선(中線)을 절단하고 지서를 습격하려고 접근하였으나 경비가 엄중함으로 목적(目的)을 달치 못하고 도주함

8) 상리지서 관내

동일한 지령으로 면책(面責) 김○○은 죽창·곤봉을 소지한 폭도 약 50명을 지휘하여 同日 오전 0시 30분경 지서에 접근 경비중선(警備中線)을 절단한 후 지서를 습격하려 하였으나 경비가 엄중한 고로 목적을 달치 못하고 도주함

9) 경찰의 조치

야간에는 항상 각 지서에 경비중활(警備中活)로서 치안상황을 청취하고 있으나 일부 지

서에 중활(中活)이 불통할 뿐 아니라, 동일 오전 3時경 삼산지서 직원 1명이 경계망을 뚫고 본서(本署)에 급보하여 왔으므로 인접 사천서(泗川署)에 연락, 하이지서에 응원토록하여 사태수습을 함과 동시에 피해당한 직원의 긴급가료(緊急加療) 등을 하고 일부 본국(本局)에 응원을 요청 폭도를 추격함과 피탈 총기를 4월 10일까지 완전 회수함은 물론, 폭도 약 612명을 검거, 취조한 결과 검찰청 송치 217명, 치안관(治安官) 송치 82명, 소년심리원(少年審理院) 송치 28명, 설유(說諭) 석방 345명으로 사태를 일단 수습

10) 피해상향

(1) 인적피해

가. 순직

삼산지서 경사 채충순(蔡忠順, 42), 하이지서 순경 이규섭(李圭燮, 25)

개천지서 순경 김영규(金榮圭, 25), 개천지서 순경 박강평(朴岡平, 26)

나. 중상

하이지서 경사 김선수(金善洙, 26), 하이지서 경사 구세운(具世運, 26)

하이지서 순경 안교운(安敎允, 25), 개천지서 순경 박삼태(朴三泰, 24)

다. 경상

개천지서 경사 박량조(朴量組, 36), 수사계 순경 문상윤(文相允, 24)

라. 대동청년단 직원 1명 순직, 남로당 하일면당 부원 1명 피살

(2) 물품피해

가. 총기 피탈: 99식 장총 9정 同 실탄 182발, 칼빙 총 2정

同 실탄 32발, 칼빙 총 1정 파괴

나. 건물피해 : 개천지서 건물 파괴 지서 일체 소각, 당동지서 건물문서 일체 파괴 및 면사무소 일부 파손, 지서원 2명 생활도구 일체 파손(시가 약 600만원), 삼산지서 건물 일부파괴, 문서소각, 하이지서 건물 일부파괴, 하이지서 건물 전부 및 문서소각

다. 그 외 양민가옥 피해 약간

- 6. 8 주모자 남로당 고성군책 정○○외 군위(郡委) 간부 5명이 양일에 걸쳐 우익 3人을 살해

4.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경찰

1) 내무부 치안국으로 개편과 고성경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미군정은 폐지되었다. 9월 2일 정부수립에 수반한 기구조직에 따라 내무부 훈령 제1호로서 과도정부로부터 국립경찰을 이양받는 동시에 경무부는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각 도 경찰청은 각 시도지사 산하 경찰국으로 예속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고성경찰서 경찰관은 120명이었다. 조직편제는 본서에 9개 계(총무계, 경리계, 수사계, 사찰계, 공안계, 공보계, 통신계, 경비계, 병사계)와 직할외근 및 기동부대를 운용하고, 13개 지서 2개 출장소도 그대로 운용되는 체제였다. 1949년들어 경찰관은 130명(경감 1, 경위 6, 경사 23, 순경 100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정부수립과 함께 조직기강확립을 위해 복무규율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감찰권을 발동 파면, 해임 등 강력한 징계를 단행하였다.

이 시기 경찰의 주요업무는 일면 치안, 일면 국방이었다. 관내에서는 1948년 3월 9일 발생한 폭동사건의 미검자와 야산대 검거에 나섰다. 관외에는 1948년 제주도 43사건 수습과 여수순천지구 제14연대 군부반란 사건, 지리산 공비토벌 등에 지원 나가 전투를 수행하였다. 1948년, 9월 28일 제주도 1회, 10월 25일부터 1949년 1월 22일까지는 4회에 걸쳐 경남 하동산청지구 지리산 지역의 잔적(殘賊)소탕에 동원되어 ‘잔적에 물자를 공급하는 남로당원 1명’을 검거하는 등 경찰활동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표(年表)

1948년

- 8. 15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야산대(野山隊) 악행

39 고성폭동사건 미검거자는 산악지대로 피난하면서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기념사사(記念思赦)로서 출옥한 사상범자들과 맹렬한 지하공작을 감행 중 同年 11월 여순반란 사건을 계기로 고성군 야산대를 조직, 지리산 반란군으로 부터 M1 총 1정과 실탄 24발을 입수하여 同年 12월경에 양민살상 3건 同 중상 2건, 금품탈취 15건 등 악행을 자행 함으로 경찰은 전력을 경주하여 소탕전을 전개 1949년 6월까지 同 야산대 9명을 완전 사살(射殺)하고 전기 총기를 압수

1949년

- 2. 23 제7관구경찰청 제21구경찰서를 고성경찰서로 명칭환원

- 2. 6 남로당 도위원 선책(宣責) 겸 고성군책 백○○(41세)의 2명이 2월 6일 고성읍 우산리 민보단(民保) 간부 이○규, 2월 9일 영오면 오서리 구장 윤○천과 장남 윤○림을 살해
- 8. 9 통영군 통영읍 정량리 민가에 잠복 중인 절도 상습자이며 1949년 5월 12일 삼산면 삼봉리 피해자 장○상 家 외 일개소에 발생한 시계절도 범인 김○열 외 1명을 검거

2) 1950년대 경찰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의 불법남침으로 전란이 발발하여, 8월 1일 고성에서는 처음으로 인민군과 대적한 후 일진일퇴 끝에 8월 15일 작전상 후퇴하여 9월 24일 완전 탈환하기까지 고성은 약 40일간 적 치하에 있었다. 이때 고성경찰 본조 40명을 비롯한 각 경찰관은 도내 격전지에 배치되어 국군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였다. 625로 인해 관내와 인근 통영 ‘원문치(峙) 전투’에서 12명의 고성경찰이 순직하고 경찰서 청사 소실 등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고성에서 인민군이 철수한 뒤에도 산청, 합천 등지에 동원되어 전투를 수행한 고성경찰 7명이 전사하였다. 또한, 국민화한청 간부 등 우익 애국 인사 53명도 경찰과 함께 전투 수행 중 전사하거나 인민군 또는 공산도배에 의해 피살되었다.

고성을 탈환한 이후에는 잔적을 소탕하고 야산대를 토벌함으로써 치안을 안정시켜 나갔다. 1951년 625로 인한 순직자 예우와 유가족, 상이경찰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원호계 및 방공계(防空係)를 신설하였으나 1952년에는 반(班)형태로 운영하였다.

1952년 7월 1일 현재 경찰관 정원은 165명인데 비해 현원은 141명으로 결원이 24명이었으며, 1954년에는 경찰관이 133명(경감 1, 경위 10, 경사 23, 순경 99명)으로 줄어들고 1959년에는 다시 128명으로 줄었다. 625를 전후하여 필요한 인원을 대거 채용하였으나 국가재정상 다수는 면직하였다.

1954년에 당동지서 명칭을 거류지서로 변경하고 1957년에는 직할외근 대신 직할파출소를 발족하였다. 한편, 1956년 들어 간첩침투를 방어하기 위해 하이, 하일, 삼산, 거류, 회화, 동해 등 해안을 관할하는 지서에 해안 초소 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주요 연표(年表)

1950년

- 6. 8 경 고성읍 관내에서 광견병(狂犬病)이 만연되어 인축(人畜)의 피해가 극심하여 응급조치로서 군(郡) 당국과 긴밀한 연락하에 중대박살(重大撲殺)을 단행한 바 7월 10일 현재 종식되었으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광견병(狂犬病) 예방 주사를 실시

- 6. 22 18:00경 관내 영오면 영대리 권동길(權東吉) 家에서 발화함에 동면 지서 주임 이하 전 직원 및 의용소방대원과 동면 거주 부락민을 총 동원하여 진화작업에 노력하였으나 수리(水利)관계의 불원활으로 겨우 동일 20:00경에 진화되었으며 인축(人畜) 소실은 전무하고, 가옥 17동 소실 피해액 시가로 1,000만원에 상당하는 손실을 입었음

(1) 6-25 전란과 고성경찰³⁾

가. 고성경찰 6-25일지

- 8. 1 16:00경 영오면에 북한 인민군 진입
관내 일부 영오, 개천, 회화, 마암, 구만, 하일, 하이 지서원(支署員)을 본서에 집결 명령, 경찰서 일부 직원을 남산 고지에 집결시켜 진지 확보
- 8. 4 우군기 적군 집적처(集敵處)에 1차 폭격
- 8. 6 11:00경 우군기(호주기) 적군 집적처(集敵處)에 2차 폭격 시 고성경찰서 건물 전체 파괴됨
- 8. 11 01:00경 남산고지를 포기 후퇴
- 8. 13 15:00경 재차 고성에 입성
- 8. 15 13:00경 재차 후퇴
- 8. 16 통영 원문치(峙) 전투에서 분대장 최동갑 경사 외 8명 전사
- 9. 24 15:00경 고성 탈환 입성, 경찰서를 박순봉상점(朴順鳳商店)에 두고, 관내 쏘 지서(支署)를 즉시 복구

나. 6-25사변 중 중요경찰 사항

괴뢰집단이 불법남침한 6-25사변이 돌발하자 당 관내에서는 거등(渠等)이 호흡(呼吸), 기관(機關)에 최종(最重)경계 발본색원적(拔本塞源的)인 맹활약을 전개함과 불철주야 한 경비로서 대적(對敵)에 만반 대비하고 있는 중 6월 27일 수도 서울이 피탈되었다는 비보와 동시에 점차 거등의 세력은 만연되어 7월 26일 오후 1시경에는 경남 일부인 하동에 침입하고 진주를 위시하여 창녕, 함안 등 인접 경찰서에 적이 완전 침입하게 되자 진주, 사천 서원(署員)도 부득이 전원 후퇴함과 영오면 악양동(岳陽洞)에 괴뢰군 침입이라는 정보로 8월 1일 오후 4시 당관내 일부 영오, 개천, 회화, 마암, 구만, 하일, 하이 支署員을 전부 본서에 집결 명령하여

① 완전공격 태세에 돌입하였던 바

3) 고성경찰서 경찰연혁사(1952년 7월 1일 기준 작성)

8월 1일 오후 4시, 당 관내 영오, 구만에 적이 형태를 보이게 되자 我 경찰서 일부 직원을 남산 고지에 집결시켜 진지를 확보, 대적(對敵)의 전투를 시작되었으므로, 아방은 140명의 소수 병력으로 맹공격을 가하여, 同 오전 12시경 300여 명의 적과 대적하여 진지를 확보하였으나, 적은 또다시 3,000명 작군(作群) 대항에 쫓아졌으며, 同 배치 전선에서도 일진일퇴 감투(敢鬪) 하는 중 우군기(友軍機)가 8월 4일, 6일에 거하여 3대씩 날아와서 적군 집적처(集敵處)에 폭격을 가하였으므로 아(我) 경찰관에까지 피해를 몽(蒙)해야 응원과 과견된 전남경찰국(全南警察局) 순경 1명이 폭사 외, 當 경찰서 본사(本舍)가 8월 6일 오전 11시경 파괴, 민가 5軒 전소(全燒), 부상자 고성서 순경 강흥국(姜興局) 외 2명 등 위기 절박함으로 부득 각처로 분산 전투케 하고 임시 임전(臨戰) 본부를 고성읍장실에 이동한 후 수회에 궁(亘)하여 본국에 폭격을 하지 마라고 무전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애석하게도 동지(同志) 1명을 잃고, 부득이 8월 11일 오전 1시경 남산고지를 포기 후퇴하여 통영서 관내 광도지서에 집결 대적한 결과, 아방(我方)이 유리함으로 同 8월 13일 오후 3시경 재차 고성에 입성하여 경남경찰국장 최천(崔天) 직접 지휘下 손술조(孫述祖) 서장과 대적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8월 15일 오후 1시 재차 후퇴하여 진주, 하동, 사천 등지에서 후퇴하는 경찰관과 합류 거제, 울산 등지 분산 최전선 방위에 당하게 되었던 바,

② 상당시간 사수(死守)하던 고성을 포기하게 되면 갈 곳 없는 백성(百姓)이 되니 옥쇄(玉碎)하더라도 사수(死守)하자는 최후 결의를 하였으나 중과(衆寡)에는 전무도리(全無道理)해야 눈물로서 관할구역을 포기한 서원(署員) 일동은 각 지구 최전선에 분산 파견되어 승리의 길을 등대세워 용진을 거듭하던 바 위대한 UN軍의 일대반격 거탄세례(巨彈洗禮) 등으로 준동(蠢動)하던 악괴(惡鬼)들도 각전(各戰)에서 거반(擧半) 섬멸당하고 초장(初長) 갈중(葛重)이든 승리와 고성(固城)탈환도 착착 궤도를 찾게 되자

③ 9월 24일 오후 3시에 벗이던 고성서원 일부는 서로 상면(相面)하게 되고, 통영에 집결하여 고성을 목표로 하고 행동을 개시 산악능선을 타고 적을 탐사(探查) 잔적(殘賊)을 소탕하여 남산고지에서 괴뢰군 4명을 생포하여 일대 개가를 울리며 당일 오후를 기하여 시민(市民)의 환영리에 손서장(孫署長) 휘하 본서원(本署員) 40명 본국 응원대 70명은 그리던 고성을 탈환 입성하여 귀시(歸時) 경찰서를 박순봉 상점(朴順鳳商店)에, 관내 소 지서(支署)를 즉시 복귀시켜 각 관공서(官公署)도 정리에 분주하는 중 지방민(地方民) 착착 복귀하였으므로 민심수습과 피해상황 폐지(廢地)정리에 노력 중임

④ 입성 후 각처에서 용전(勇戰) 감투(敢鬪) 중 불귀의 황천객이 된 직원을 조사한 바, 고성서 경사 송순근(宋順根, 27) 8월 6일 고성 배둔 시가탈환 전투에서 순직, 고성서 순경 전병두(全炳斗, 25), 순경 김규철(金圭喆, 28), 순경 김정규(金正圭, 25), 순경 이준기(李俊基, 24), 순경 최천동(崔賤童, 26), 순경 조주춘(趙柱春, 30), 순경 심경보(沈慶輔, 26), 경사 최동갑(崔東甲, 30) 8월 16일 통영군 광도면 원문치 전투에서 순직, 순경 윤종대(尹鍾大, 23) 10월 1일 영오지서 부근 전투에서 순직, 진주서 응원직원 경위 김용훈(金容勳, 41), 경사 2명, 순경 2명 순직

다. 6·25사변 이후 치안상황

국련군(國聯軍)의 일대 반격과 군경합동 작전으로 9월 24일 고성을 탈환 입성한 후 잔적 소탕 괴뢰군 생포 4명, 무기압수 등으로 단시일 내에 민심(民心)을 수습되고 평온하여 4, 5명의 잔적이 사천, 진주를 경계로 하는 관내에서는 간혹 출몰하여 금품(金品)강탈 등을 자행하고 있음으로 상금(尙金) 낙관(樂觀)을 불허(不許)하는 실정에 있으나 대체적으로 평온한 상태에 있음

라. 6·25사변 이후 지역사회 안정과 치안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① 경찰서 청사 소실로 인한 근무 지장

당서 前 청사 부지 825평(본청사 116평, 연식장 48평, 유치장 16평, 창고 23평)에 콘크리트 건물은 6·25사변 당시 괴뢰군이 당 관내 침입하였을 때 수차 연합국 공습으로 인하여 전소당하고 현 고성읍 성내동 신화적산(新花敵産) 가옥인 목조(木造) 아연 집 3층 건물 총 70평(前 日本人 德元商店)을 고성경찰서 가청사로 정하고 목하(目下) 업무 중인 바 이 청사 역시 수차의 공습으로 대부분 파괴되고, 창문 및 기타를 대략 수리하여 현 사용 중이며 유치장은 가청사 창고를 수리 사용하여 오던 중, 1951년 4월 1일 부로 원형 잔유 前유치장을 개수하여 사용 중이고 숙직실은 간부실·내근·외근실의 온돌을 사용하고 있으며, 창고는 가청고로 우선 사용하고 있으나 제반 청사 시설을 일견(一見)건데 대외적 경찰 위신을 실추하는 건물이고 그 내부 조사하여 보면 불충분 또는 불비한 관계로 서(署) 유·지·회 운영상 다대(多大)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일대개수(一大改修)를 요함

② 교통에 관한 상황

당지(當地)는 마산·진주통영을 통하는 교차점인 故로 왕시(往時)부터 육운(陸運)의 편이 극히 양호하였고 연해(沿海)에는 주집(舟楫: 노 젓는 배)의 취향이 편하여 육해(陸海) 공히

교통이 편리하였던 바, 625 동란으로 육운(陸運)에 있어서 도로의 파괴와 아울러 차량 부족으로 수복 직후에는 일시 곤란을 면치 못하였으나 그 후 도로의 수리와 운수업자들의 노력으로 625전쟁 이상의 발전상을 보이고 있어 625 이전 운행하던 경남(慶南), 남선(南鮮) 외, 천일(天一), 대한금속(大韓金屬) 등의 諸 회사 여객차량이 활발히 운행(運行)하고 있으며 해상교통 역시 일시 정돈상태(停屯狀態)에 있었으나, 그 후 점차 복구되어 목하(目下) 고성-통영 간, 고성-부산 간의 정기여객선(定期客船)이 격일(隔日) 취항하고 있음

③ 소방에 관한 사항

당서 관내에는 소방서가 없어 읍 소재지에 소대장 이하 70명, 각 면에 50명의 의용소방대를 편성 설치하여 귀중한 생명과 국가의 재산을 손실케 하는 화마를 소멸(掃滅)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상시 맹훈련을 하여 왔으나 625동란으로 소방기재의 소실 또는 분실당하여 극히 미약한 지경에 합입(陷入) 하였으므로 이를 충당(充當)하여 일단 유사시(有事時)의 소방에 待코져 위선(爲先) 당 소재지에 소방차 1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계(機械)의 성능 결함으로 획기적으로 역할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④ 위생에 관한 사항

당서 관내는 개인병원이 5개소 有하나 읍소재지에 구호의원이 설치되어 郡 당국과 긴밀히 연락하여 극빈자와 잔재민(殘災民) 등 치료에 당하고 있음

⑤ 조장행정 기타 주관 외 사무원조 및 주요사항

- 도로수선 및 보수공사 원조
- 대청소실시 원조
- 면허세법에 수반한 면허세 징수
- 한발(旱魃)로 인한 이양(移秧)추진 원조

⑥ 법령훈령·고시와 改度 및 이에 대한 집행사항

- 전후 생활개선법 철저 이행
- 축우도살 방지 철저 시행

마. 625사변 이후의 민심동향

북한 괴뢰군의 불법 남침후 日益 전세 불리함에 따라 민심은 점점 험악하여 수습이 곤란

하였으며, 일시 전략상 고성을 포기한 후에 그 40일간의 관내 비상사태를 이용한 관내 좌익 불순분자는 완전 표면화되어 일반민심을 교란(攪亂)시킨 고(故)로, 무지한 농민은 피동적 혹은 자동적으로 일대 만행을 자행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던 중 경찰의 탈환 진주 이래(以來) 계속 귀순 권유와 계몽 선전한 결과 민심은 거의 안정(安定)되어 가는 현상에 在하던 중 同年 11월 중공군 개입으로 전세 일시 불리하여짐에 따라 일부 부민(部民) 중에는 고성 재침입을 염려하여 거제, 부산 방면으로 피난을 계획하는 등 민심의 동요가 극심하였으나 쏠 민족진영 인사를 총동원하여 계몽선전을 반복 실시한 결과 현재에 至하여서는 민심은 안정되고 있는 현상임

바. 사찰유격대(查察遊擊隊)의 전과(戰果)

수차의 토벌작전으로 사찰 혹은 생포하여 과멸상태에 함입(陷入)한 고성군당(固城郡黨)을 재조직코자 그 공작원 10여 명이 고성(固城) 와룡산(臥龍山)에 잠입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당서(當署) 유격대의 계획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한 결과 공비 10명 검거, 총기 9정 압수하였으며 민중(民衆)은 일익(日益) 경찰을 신망의 도(途)에 있는 현상임

주요 연표(年表)

1951년

- 1. 20 20:00경 하일지서에 완전 무장한 공비 15명이 포(砲), 수류탄, M1, 99식 장총 등 장비로서 사방으로부터 지서를 포위 급습하였으므로 지서직원 5명은 이에 대항 상호 약 30분간 치열한 교전을 하였으나 아방은 중과부적으로 부득이 지서를 포기 약 1시간 후 퇴하게 된 것을 기회로 적은 지서 내에 침입 방치하여 둔 석유(石油)로서 청사와 지서 주임 관사에 뿌려 방화 전소케(비품과 가재도구 일체) 하고 지서 후산으로 도주함 아방(我方)피해는 경찰관 1명 부상, 지서청사 1칸과 가재도구 전소당하고, 소식(蘇式) 기관단총 1정을 피탈당하였으나 그 후 철저한 토벌 작전 전개한 결과 내습(來襲) 공비 전원을 사살 혹은 생포하고 단시일 내에 총기도 회수하였음
 - 2. 12 17:00경 부민(部民)으로부터 회화면 삼덕리에 무장공비 출몰이라는 유력한 정보를 입수하고 지서주임 경위 김철남 지휘하에 경찰관 2명, 향방(鄉防)대원 5명 용약 현장에 출동 수색한 결과, 적을 발견 약 15명과 약 30분간 교전한 결과 아방 피해 전무하고 적 2명 생포, M1 총 1정, 소식(蘇式) 장총 1정 동실탄 81발, 미식(美式) 수류탄 4개 등을 압수
- 익일인 2월 13일 17:00경 전일 생포한 공비를 엄중 취조한 결과 창원군 진전면 봉암리

에 공비 이지트가 有하다고 자백(自白)함으로 지서주임 지휘하여 순경 오태수 外 항방 대원 1명 인솔 현장에 급행 부근 일대를 포위 생포를 목적으로 하고 귀순 권유하였으나 공비는 소식장총을 발사함과 동시 수류탄을 투척 대항함으로 상호교전한 결과 적 사살 1명, 소식장총 1정, 불온문서 다수를 압수하였으며 이방피해는 적의 수류탄 투척으로 지서주임 경위 김철남 우족하부, 순경 오수찬 우수에 각각 20일 췌치료의 부상을 당함

- 7. 15 해방 6주년을 전후한 잔비섬멸 총궐기 기간 中 거서(擧署) 일치하여 멸공정신을 유감없이 발휘, 적생포 16명 각종 소총 7정을 노획(鹵獲)하였으므로 경상남도 비상경비사령관으로부터 일등상 금일봉첨부 표창장을 수함
- 10. 5 1951년 6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고성·사천·통영권 등지를 중심으로 전후 20여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 주범 조○대 검거하고 피해물품 대부분 압수

1952년

- 2. 23 회화면 배둔리 당항포항 선박 내에서 다량의 우육(牛肉) 발견하여 세밀 조사, 회화면 배둔리 거주 조○일의 밀살 우육임을 탐지 검거
- 3. 20 고성 사천 등지에 신출귀몰하며 민중을 전율케 하던 절도사건 수사에 임하여 고성읍 교사리 거주 김○수 검거

1953년

- 4. 15 전일(前日) 삼산면 삼봉리에서 발생한 강도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범인을 일망타진
- 5. 19 02:00경 관내 무장 강도사건 발생 13시간 만에 진범 박○삼 외 3명을 일망타진함과 동시 소지 중이던 칼빈 2정 실탄 및 기타 물품 다수를 압수
- 11. 43일전 관내 고성읍 성내동 쌀시장에서 발생한 다액의 절도사건을 과학적인 범죄수사로서 범행 후 단시간에 진범을 검거
- 11. 12 고성읍 울대리에 발생한 다액의 절도사건 수사하여 과학적인 수사로서 범행 후 단시간 내에 진범검거
- 11. 157일전 거류면 은월리에서 발생한 다액의 절도사건을 과학적인 수사로서 범행 후 최단시간에 범인 검거

1954년

- 1. 23 10:00경 통영군 통영읍 거제여관에서 은신하고 있던 ‘1950년 6월 1일 11시 부산 시 남항동 이○준(40세)을 살해하고 다액의 금품을 탈취 도주한 강도살인범’ 곽○운 검거
- 4. 19 한국을 배반하고 일본 밀항 기도자 일당 15名 검거
- 7. 21 치안국 공보실 민경신문 편집부 취재부장 사칭, 전라도·경상도 일대에서 광고료명목으로 각 기관장, 유지 80여명 상대 도합 137,500여환 편취범 검거

1955년

- 1. 3 ‘1954년 12월 13일 고성읍 월평리 김○자 家에서 발생한 다액 도난사건’ 진범인 김○호를 검거하고 피해품 모두 회수하였음
- 3. 3 통영경찰서 유치장 탈출범인 주범 김○수 외 1명을 검거 인계
- 3. 24 20:00경 구만면 낙동리 노상에서 ‘1955년 3월 21일 20시 50분경 통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유지인 탈주’ 도주로를 차단 주범 체포
- 5. 7 01:20경 고성읍 동외동 강○렬가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이 강○렬의 다액채무지불 독촉을 모면하기 위한 허위신고임이 판명
- 9. 3 05:00경 동해면 봉암리 최○남 가에서 발생한 강도사건 수사 중 최○남이 보관중이던 타인의 물품을 매각하고 그 물품의 반환을 모면하기 위한 허위신고임이 판명
- 12. 7 경찰서장이 읍의원들을 주연(酒宴)에 초청, 읍장 재선거 5명 입후보자 중 자유당 某氏를 당선하도록 요청한데 대해 읍의회 김부의장이 불만을 표시하자 경찰서 사찰주임이 발로 차서 전치 1개월을 요하는 안동결막과열상을 가함

1957년

- 3. 11 마을 회갑잔치에서 봉변을 당한 하이지사 주임 최○○(40)경사가 분풀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비습격을 빙자하여 부하직원 7명 전원을 동원, 4명의 양민을 공비로 몰아 지서에서 폭행하여 실신상태에 빠뜨린 사건 발생
- 5. 1 고성읍 동외동 335-5번지에 고성체육관 사무실을 차가, 고성경찰서 직할파출소 정원 8명으로 발족
- 7. 2 지난 5월 초순경 대가면 대평리 김○수와 거류면 송산리 김○도로부터 체대시키겠다는 이유로 각각 1만5천환씩을 사취한 다음 각종 인장을 위조하여 전역서류를 위조하다가 발각된 고성읍 우산리 이○수(23)를 ‘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

1958년

- 7. 1 09:20경 영오국민학교 별관 1학년 달반 교실 천장이 무너져 기왓장 지붕(약 60 평)붕괴,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최귀련(여, 23세)과 36명의 어린이가 기왓장 속에 깔리는 사고 발생(어린이 5명 사망, 교사 등 어린이 11명 중상)

1959년

- 1. 2 00:30경 고성읍 성내동 김○성(34, 과자업) 집에 복면괴한 2명이 침입 과도로 가족을 위협하고 현금 6만원과 의류 6만원 상당을 강취 도주
- 2. 3 00:30경 거류면 송산리 구○서 집에 복면괴한 1명이 침입, 현금 1만9천5백환 면포 6십 '마' 의류다수 등을 강취 도주
- 7. 7 하일면 학림리 348번지에 단층 연아조(鉛亞造) 22평의 신축 공사에 착공하여 동년 11월24일 하일파출소 이전 집무
- 9. 14 17:30경 고성읍 우산리에 사는 이○동(22)이 상리면 무선리에 사는 문○환(21)을 자기 동네 밭에 끌고 가서 돌로 뒤통수를 쳐서 즉사
- 12. 27 영남일보 고성지국장 허○○(24), 대구일보 고성지국장 김○○(35)이 작년 6월 하순경 고성읍 월평리에 사는 최○○(25)군이 유부녀와 간통하였다고 신문에 보도한다며 공갈하여 10만원을 강요하던 끝에 1만원을 갈취한 혐의 구속

3) 1960년대 경찰

1960년 4·19혁명 이후 7월 29일 실시된 총선에서 최석림 후보가 당선되자 7월 30일에는 소요사건이 발생하여 고성군청과 고성경찰서가 점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962년 고성경찰서 경찰관은 127명(경감 1, 경위 5, 경사 22, 순경 99명)이었다. 이 해에 경찰서 각 계 주임은 계장으로 호칭이 변경되고, 직할파출소하에 남포초소를 증설하여 해안경계를 강화해 나갔다. 1963년에는 직할파출소 명칭을 성내파출소로 변경하였다. 1965년에는 그동안 운영되던 병사계가 폐지되고 교환직 4명, 고용직 14명, 청부 1명 등 경찰관이외의 인원이 근무하게 되었다.

1968년 7월 5일에는 각 기능에 과(課)가 도입되면서 5개과 11개 계로 재편되고, 과장은 전원 경위계급이었으며 계장은 전원 경사로 임명되었다.

1968년에는 총경 서장서로 격상되었다. 1969년에는 경찰서 등급을 가급, 나급, 다급, 라급으로 구분하고 라급은 총경서와 경정서로 구분되었는데 고성서는 라급으로서 총경서 등급이었다.

이에 따라 1969년 1월 15일 한덕협 총경이 고성경찰서 최초의 총경 서장으로 부임하였다. 5개과, 13개계, 14개 자파출소에 12개소의 어선통제신고소를 운영했다. 인원은 경찰관 136명(총경 1, 경감 2, 경위 4, 경사 26, 경장 19, 순경 84명), 기능교환 4명, 고용 1명, 임시용원 1명이 근무하였다.

1967년 9월과 1969년 6월, 2회에 걸쳐 하일, 하이 해안으로 간첩이 침투했다. 이에 따라 삼산, 하일, 하이 해안에 전투경찰중대를 상주시키는 등 대간첩작전과 해안경비업무를 강화하였다.

주요 연표(年表)

1960년

- 7. 30 09:40경 고성읍 성내동 제5대 민의원 선거개표소(고성군청 내) 앞에서 在京 대학생 약 40명(데모주동자)·고성농고생 약 100명·고성여중고생 약 50명·일반인 약 700명 등이 입후보자 최석림의 부정을 규탄하는 연좌데모 중 득표수의 중간발표에 의하여 최석림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흥분하여 군청과 옆에 있는 경찰서를 포위·투석함으로서 일시 경찰서와 군청이 점거 당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경찰관 경상 45명·중상 4명 계 49명, 데모대원 경상 6명 등 인명피해, 고성군청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물 30만9천 환(투표함 소실 87개, 파괴 15개, 투표용지 소실 120,268매 포함)·고성경찰서 기물 34만 4천 환 물적피해 발생, 7월 31일 오후 11시 난동자 40명에 대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 집행
- 8. 23 개천면 재무계장 최○홍은 23일 동면 제2투표구 선거위원장인 동면 총무계장 송○치로부터 선거위원장의 직인 보관을 위임받은 후 23일 아침 7시까지 돌려주지 않으므로 동 투표구의 투표가 2시간 20분이나 지연시킨 것을 직무유기죄로 구속
- 12. 8 거류면 송산리 55번지에 시가 2만원 상당의 건물전소의 방화사건 발생

1961년

- 1. 5 17:00경 영오면 양산리 양기부락 김○홍(31=농업)이 같은 부락에 사는 김○진(33)과 함께 조문 다녀오는 길에 언쟁, ○진의 복부를 때려 사망
- 1. 9 하일면 춘암리에 4천 원 상당의 강도사건 발생
- 12. 24 13:10경 순경 강진순이 순찰 중 고성읍 동외동 거주 정○화(37세)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고성만 해안에 투신하여 자살을 기도하는 것을 발견, 구조

1962년

- 1. 16 04:00경 고성읍 성내동 양복점 경영주 이○수(42세) 家에서 발생한 두루막 복지 등 시가 22만원 상당을 강취 도주한 준강도범 강○규를 익일인 1월 17일 13:00경 마산시 월남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검거
- 9. 14 00:30경 고성읍 동외동 노상에서 한○균(34)이 같은 마을 정○직(32)을 언쟁 끝에 식도로 목을 찢러 즉사케 함

1963년

- 12. 31 00:30경 동해면 내곡리 농협 숙직실에서 정○연(41)이 협동조합장 김○오(41=이장)를 625사면 때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부친의 원수라며 살해

1964년

- 1. 30 03:40경 회화면 배둔리 주택에서 특수강도사건 발생(피해 7,160원 상당)
- 3. 31 살인사건 진범을 14시간 만에 검거
- 4. 2 삼산면 두포리 앞 해상에서 첩에서 출생한 자식 살인사건 발생
- 6. 24 23:30경 특수공작에 의하여 남해군 삼동면 거주 괴뢰 고정간첩 최○○ 외 동조자 3명을 서장 직접 지휘하에 검거하여 불온서적 등을 압수
- 10. 2 21:30경 회화면 봉동리 자소부락 샛터고개에서 친형을 무자비하게 죽인 살인사건 발생
- 12. 12 00:30경 삼산면 미룡리 431번지 농업 문○수 家에서 현금 7,800원 기타합계 시가 15,800원 상당의 강도상해사건 발생

1966년

- 4. 20 마암면 도일리 462-14번지 벽돌 슬래브 단층 건물 마암지서 청사 신축, 지서건물 및 대지 일체를 재일교포 허윤도(본적 마암면) 회사

1967년

- 4. 25 19:00경 대가면 암전리 허○권 씨(37·농업)의 처 이○연(32)과 장남 ○도(9·국민교 2년), 2남 ○목(6), 3남 ○아, 장녀 ○희(6), 2녀 ○란(5) 등 6모자(母子)가 변신체로 발견
- 6. 16 21:05경부터 21:10경까지에 고성읍 성내동에서 고성군청 방면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 신민당 김기섭 외 당원 40명이 68선거 무효시위

- 9. 22 23:30 하일면 학림리 출신 북한 무장 간첩 최○호 외 1명이 하일면 송천리 지포 부락 앞 해상으로 침입 상륙한 것을 친척의 권유로 상리지서에 자수

1969년

- 6. 5 17:00경 간첩 서○○외 1명이 공작선을 이용 하이면 덕명리 점담지역으로 침입, 삼천포를 경유 대구에 잠입한 후 심경변화를 일으켜 경찰서에 자수
- 9. 14 고성지방에 252.4mm(15일 30.6mm, 16일 10mm)의 폭우가 내려 고성경찰서 전직 원, 예비군 중대, 의용소방대 총동원하여 대가저수지 부근 대평리 주민 소개(疏開) 및 인명구호에 진력(盡力), 고성군 피해는 사망 5명, 실종 3명
- 9. 30경비정 “학생호” 건조 취항(관내 55개 국·중·고교의 기증)

기증학교

고등학교 : 고성농업, 철성, 고성종합, 고성여자

중 학교 : 고성, 철성, 회화, 고성여자, 영현, 고성동, 하일, 상리, 영천

국민학교 : 고성, 대성, 울천, 철성, 회화, 동창, 마암, 삼락, 좌현, 거류, 방산, 광일, 동해, 동광, 대장, 대동, 삼산, 대안, 삼곡, 삼오, 와도, 하일, 장춘, 수태, 하이, 월흥, 봉현, 덕명, 상리, 신촌, 산동, 송계, 대흥, 양지, 종생, 영현, 봉발, 영오, 영동, 개천, 청광, 구만

- 12. 17 고성읍 서외동 1-6번지 성내파출소 신청사 입소(정원 9명, 남포초소 1명 포함)

4) 1970년대 경찰

1970년 들어 수사과의 취조계를 폐지하는 대신 경비과에 작전경비계를 작전계와 경비계로 분리하였다. 1971년에는 해안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소수정 4척을 운용하였다. 경찰관은 148명(총경 1, 경위 9, 경사 25, 경장 23, 순경 90명)이었다. 1972년에는 전경 14명이 처음으로 배치되었다. 한편 이 시기 노후(老朽)한 경찰관서 건물들을 신축했다.

1973년 10월 16일 삼산면 삼봉리 하촌에서 경남경찰국장을 비롯한 경찰고위 간부 군내기 관장, 관내 예비군중대장, 유지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방어훈련” 을 실시하는 등 해안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주요 연표(年表)

1970년

- 7. 25 1969년 9월 14일 폭우로 인하여 청사의 도피가 우려되자 중앙에 보고하여 국고

보조 70만 원으로 구 건물을 철거한 위치에 구만지서 신축

- 11. 23 청사 노후로 국고 70만 원, 지원(地元)부담 30만 원, 개천면민 고성 출신 재외 인사 성금 30만 원, 도합 130만 원으로서 개천지서 청사 신축

1971년

- 11. 12 10:10경 삼산면 평산리 주민 50여 명이 부락에서 1km쯤 떨어진 제일광산 선광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때문에 식수와 농작물 가축 등에 피해가 심하다며 광산작업장에 들어가 신축중인 건물(100평)과 자재를 손괴

1973년

- 10. 16 11:00~13:30 도서방어훈련
- 장소 :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하촌
- 참석 : 경찰국장, 경비과장, 전경대장, 군내기관장, 예비군중대장, 지파출소장, 유지 180명

5. 치안본부시대 경찰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부인 피격 사망사건은 국민과 정부 관계자로 하여금 경찰 고유의 기능 회복과 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7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治安本部)로 격상되다.

1974년 8월 15일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피살되는 날 10:10경부터 갑호 비상경계령이 하령되었다. 1974년 11월 19일에는 전국일원에 병호비상경계령이 ‘별명이 有할시까지 하령’ 되어 1975년 10월 2일에 해제되었다.

1975년 1월 현재 경찰관 정원은 147명 현원은 141명이었다. 이해에 유난히 사건이 많았는데 9세 이하 어린이가 소류지나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사건이 5건(5명)이나 되었다. 살인(미수포함)사건이 6건, 강도강간 등 강력사건이 4건 발생했다. 삼산 관내 탄광매몰이 2건, 낙뢰사건이 2건(사망 1명) 발생하였다.

1976년 11월 25일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산195-2번지에 706전투경찰대대 본부(대대장 경정 유성국)를 창설하여 거제·남해·통영·사천에 예하 대대를 두고 경찰서장이 수행하던 해안 경비 임무를 전투경찰대대장 책임으로 이관하였다.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인 부마사태(10. 16~20)가 발발하자 고성경

찰서에서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장을 포함한 3/53명의 경력(警力)이 출동하였다.

1970년대는 670년대를 전후한 북한의 도발, 10월 유신에 반발한 민주화 운동, 1975년 4월 30일 월남패망으로 인한 안보위기와 대간첩경계,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화 속에서 급증하는 범죄와 사고에 대응한 민생치안, 다중진압훈련과 출동 등으로 고단한 시기였다.

주요 연표(年表)

1975년

- 2. 23 23:30 대가면 암전리 음곡 부락에서 피의자 이모(19세, 고성농고 2년)가 동부락 거주 최모(23세, 여), 이모(28세, 여)에게 각각 우측흉부 자창상(위독), 좌측흉부 자창상(3주)을 가하고 피의자는 익일 07:30경 피의자家로부터 300m 상거한 산에서 변사체로 발견
- 3. 29 17:00경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밀항기도자 강모(37세, 남)등 7명은 시외버스 편으로 마산 경유 20:00경 고성 도착, 집결지인 삼산면 판곡리 갈망개 고개에 가는 도중 남포 어선통제소에서 검거됨
- 4. 14 20:00경 고성읍 동외동 피의자 김모(22세)가 처남 최모(21세)와 시비하다 구타 땅에 진도 치사케 함
- 5. 15 19:00 개천면 북평리 보리밭에서 피의자 마암면 신리 이모(21세, 농업)가 피해자 개천면 북평리 김모(21세, 무직)를 강간상해
- 5. 31 20:00 거류면 용산리에서 피의자 이 모(23세, 여)가 분만한 생후 1일된 여아 살해 사체유기
- 6. 5 22:30경 하일면 학림리 가정 집 방실에서 여아(11세)를 피의자 구모(31세, 이발업)가 추행
- 6. 5 18:00경 마암면 도전리 소재 마암면 사무소 내에 충무시 북신동 주모(34세)가 자칭 기자라 칭하여 부면장 허모(56세)에게 1,000원 갈취, 구속
- 8. 30 15:30경 상리면 무선리 고성경찰서 무선중계소 수태산 505고지 안테나에 낙뢰, 중계소 방실에 있던 라디오 1개 파손, 순경 박종한(28세)과 함께 있던 동료의 처남 배동현(18세)이 우측 대퇴부 감전으로 마비 1주간 요치료 상해
- 9. 9 14:30 삼산면 병산리 삼아광업 내 채성 제삼갱 광산에서 황○철(23세, 방위병)이 광석 집적장의 광석을 광차에 적재하려다 광석이 무너져 매몰 압사
- 9. 13 거류면 은월리 피의자 이모(19세)와 1명이 같은 마을 서모(16세, 여)를 부근 포도밭으로 유인 윤간

- 9. 15 12:30 대가면 연지리 지동부락에서 고성읍 덕선리 거주 박모(14세, 여·국민학생)가 중식차 귀가 중 낙뢰 번사
- 9. 25 09:00 하이면 봉현리에서 피의자 김모(16세, 목공)가 피해자 강모(9세, 국교 2년)를 옆집 부근 밭으로 유인 강간하고 살해, 사체는 우물에 유기
- 10. 2 18:00경 영현면 연화리 피의자 김모(33세)가 술만 먹고 논다고 피해자(처)가 꾸중을 하는 것을 뺨을 한 대 때려 넘어지자 이에 피해자가 격분 죽어라고 달려들자 칼로서 겨드랑이를 찔러 현장에서 즉사(10. 4 자수)
- 10. 4 19:50경 고성읍 서외동 피해자 윤모(32세, 남)가 고향인 대가면에 갔다가 대가 국민학교 춘계운동회에 참석 피의자 영현면 대법리 법촌 임모(26세, 남) 등과 같이 음주, 피의자 등이 피해자를 보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 발단 피의자와 같이 싸워 피해자가 뇌진탕으로 사망
- 10. 26 04:55경 강간피의자 손모(19세, 무직)가 보호 중 도주하여 17:50경 거류면 송산리 이모(50세)家에서 검거됨

1976년

- 1. 20 02:15경 경북대학 공과 3학년 옥모(25세)는 동생(17세)과 함께 방학기간 중 옥천사 객실 2호실에 입주 야궁이 장작을 과도하게 화입하여 온돌과열로 화재 발생, 목조와가 객실 1동(12칸 중 8칸) 소실, 피해액 63만9천원
- 2. 21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거주 철도피의자 이모(18세)를 삼천포에서 불심검문 검거하여 숙직인계 보호 중 근무자 순경 이삼량이 06:00경 화장실 대동 감시소홀, 피의자가 창문을 깨고 도주(1976. 2. 24 18:00경, 마산시 회성동 노상에서 도주 당시 숙직 근무자 순경 이삼량이 발견 검거)
- 9. 6 하이면 운흥사 내 시가 35만원 상당 동화상 4점 도난
- 12. 27 경찰서 경목위원 최초 위촉(고성경찰서 경목협의회)

1977년

- 11. 17 18:00~18:30경 사이 고성읍 주차장 ○○여객 버스 내에서 피해자인 모 초등학교 교감 김모(52세)가 고성군 농협에서 교사봉급으로 수령한 168만 원이 든 가방을 귀교 중 도난당함

1978년

- 3. 7 03:30경 회화면 배둔리 보건당약국에 피한 2명이 침입 철근 1m 정도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 박모(31세, 남) 부부를 위협 현금, 귀중품 등 894,000원 상당 강취 후 도주 (1978. 3. 15 롯데마산출장소 강도 동일범, 마산서 인계)
- 9. 26 08:00경 피의자 김 모(28세, 여)는 하이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남편 박 모(36세)가 주벽과 의치증이 심하여 고통을 당하여 오던 중 삼천포 한약방에서 청산가리를 구매, 감기약 봉지에 넣어 감기약이라 속여 투여 살해

1979년

- 1. 1 17:00~22:00경 평소 의치증이 심한 피의자 정 모(49세)는 동해면 소재 자신의 소유 밭에서 피해자인 妻 최 모(46세)와 같이 김을 매다 팽이로 찍어 살해하고 그 후 자신도 음독자살
- 4. 29 13:15경 하이면 덕호리 화력발전소 공사장 발파작업 중 사고 발생,고성읍 수남동 정○진(28세) 사망, 마산시 양덕동 백○환(40세) 2주상해
- 8. 1 11:00경 하이면 덕호리 삼천포화력발전소 공사장 돌산을 불도저로 정리 작업 중 지반이 무너져 운전기사 이○구(30세)는 돌에 맞아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 운전기사 고○환(34세)은 허리 등을 돌에 맞아 중상
- 8. 15 전일(前日) 하이면 사곡리에서 암소 6년생 1두 시가 40만 원, 암소 5년생 1두 시가 35만 원 절취한피의자 최모(43세, 진주시 남성동) 검거
- 9. 17 13:00경 하이면 덕명리 봉화골 선착장에서 피의자 이모(20세, 농업)가 피해자 이모(25세, 농업)와는 사촌지간으로 피해자의 父 장례식 문제로 집안끼리 의사충돌 시비 끝에 피의자가 피해자 흉부 찔러 현장에서 사망

1) 1980년대 경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정치적 공백상태가 도래하여 갈등과 분열, 극도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치안수요가 증가하였다.

1980년 고성경찰서 경찰관 정원은 147명 현원은 141명이었다. 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일컬어 지는 민주화 바람이 일자 지방에서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고성경찰은 5월 16일부터 2일간 인근 마산에 2/53명의 경력이 출동하였다.

1982년 4월 5일 식목일에는 48명의 고성경찰서 직원이 삼산면 미룡리에 편백 500주를 식수하였다.

1985년 7월에는 카톨릭농민회 40여 명이 고성장날을 기하여 한우 50두를 몰고 축우수입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1987년 8월 26일에는 거제 대우조선소 ‘고 이석규 장례 운구상황에 대비’ 하여 고성경찰서에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13개 중대 1,834명을 동원하여 관리하였다.

1988년 7월 7일에는 고성공용정류장 신축 개설에 따라 택시주차장 출입문 폐쇄에 항의한 택시기사 40여 명이 화염병과 돌맹이를 투척하는 과격한 시위를 벌여 고성경찰서 자체 경력(警力) 170여 명으로 상황을 관리하였다.

한편, 1984년 10월 1일 상리면 소재 706전경대대가 해체되어 군부대로 인계되었으며, 1989년 1월 19일 어선신고소를 해양경찰서로 이관하였다. 해방 이후 줄곧 담당해 왔던 해안경비를 군과 해경에 이관함으로써 고성경찰은 민생치안 업무에 전력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연표(年表)

1980년

- 1. 7 소장수인 鄭○평(60, 삼산면 대독리)이 지난달 7일 고성 우시장에서 소판돈 32만 원으로 다른 소장수 4명과 함께 ‘도리짓고맹’ 이 도박을 벌여 소판돈 중 11만 원을 잃자 극약을 먹고 자살
- 2. 26 18:10경 대가면 유흥리 대가저수지 옆 국도를 지나던 부산1가 8648호 승용차(운전자 이○수29)가 운전미숙으로 5m 높이의 길옆 저수지에 빠져 차에 타고 있던 최○금(65-유흥리 삼계부락) 등 4명 실종
- 9. 22 콜레라 환자 진성 2명, 보균자 5명 보건소 격리 수용

1981년

- 2. 7 19:00 고성읍 기월리에서 피의자 김모(25세, 선원)가 피해자인 친형 김모(31세, 선원)와 음주 시비 중 과도로 찢러 즉사케 함
- 2. 18 13:30~13:35경 상리단협 직원 최○범이 고성군청 민원실 앞에서싸이카 위에 실어둔 현금 6,366,400원(재해 학생 수업료 인출) 도난당함
- 4. 22 08:45경 동해면 양촌리에서 피의자 강모(47세, 여)가 피해자 하모(7세, 남 국교 1학년)에게 무면허 약사 주사투약으로 사망
- 5. 25 14:40 하이면 덕호리 삼천포화력발전소 공사장에서 폭약취급 부주의 화약폭발 사망 5명, 중상자 5명, 경상자 10명 등 20명 피해(경찰 22명 현장동원)
- 7. 27 23:20 상리면 고봉리 중담 부락 앞에서 20세 가랑 남자 3명이 피해자 박○록(36세, 진주시 상봉서동, 대흥택시 운전자)을 위협 현금 38,000원과 시계 1점, 차량 1대

강취 도주(1981. 8. 4 진양군 수곡면 강모(20세) 등 검거)

1982년

- 4. 5 09:00 고성경찰서 직원 48명, 삼산면 미룡리에 편백 500주 식수
- 9. 25 03:30경 거류면 가려리 이○진(42세)家 암소 6년생 시가 150만 원 도난
- 12. 17 22:00~03:25 사이 거류면 송산리 송정부락 피해자 집 우사 내 암소 7년생 시가 200만 원 상당 도난 용의자 부산 거주 나○○(62세, 남) 검거

1984년

- 5. 2 24:00경 동해면 외곡리 소재 한내 인삼밭에서 피의자 고성읍 수남동 김모(56세, 무직)와 외손자 백모가 3~4년생 인삼 3포대 시가 100만 원 상당 절취한 것을 동해지서 경장 박영수가 갑호비상근무 중 불심검문하여 검거
- 5. 2 05:00 마산시 월포동 제2부두 앞 노상에서 회화면 배둔리 김○○(25세, 식육점)가 운전하는 포니승용차(동화다방 소유)에 배둔리 거주 강○○(25세), 순경 권○섭 등 2명이 동승 음주 후 귀가 중 사고지점에서 가로수 충격 2명 사망, 권순경 경상(평소 친분 있던 사망자 2명이 배둔리 방범초소에서 동일 24:00까지 근무 후 귀서 중인 권순경에게 “마산에서 술 한잔하자” 고 하여 동승)
- 5. 22 00:00~03:00경 동해면 외곡리 한내부락에서 인삼 1포대 절취한 부산 개금동 거주 안모(46세, 절도 등 전과 5범) 검거
- 7. 3 123전경대 이경 정○문(22세)이 1984년 7월 2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취침한 후, 7월 3일 12:50경 식사시간에 보이지 않아 전경대원 10명이 찾던 중 15:20경 삼산면 두포리 포교부락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을 발견
- 10. 24 06:00 하이면 월흥리에서 최모(17세)외 1명이 외할머니인 피해자 박모(74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 틈을 타서 염소 3두 강취

1985년

- 1. 5 17:00경 피의자 김 모(24세)가 개천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모친을 살해한 사건 발생
- 4. 9 01:00경 고성읍 동외동 해동당 약방에 4인조 복면강도가 지봉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주인 이모(66세, 남)에게서 현금 등 113만 원 상당 강취도주
- 7. 1 06:10~12:00경 사이 고성읍 일원에서 카톨릭농민회 두호분회 등 40명(카농 8명, 일반 32명) 자가 사육 중인 한우 50두를 몰고 축우 수입 중단과 소 값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
- 7. 26 대가면 연지리 박모(34세, 농업)가 존속 살해

- 7. 30 06:00경 마암면 장산리에서 허모(25세, 농업)가 피해자 허모(36세, 남) 외 3명에게 약 3~4일 전 비닐하우스 관계로 언쟁을 한 후 감정을 가지고 도끼로서 일가족 몰살을 기도
- 9. 28 01:45 거류면 용산리에서 육군 방위병 구모(20세)가 김모(66세, 여)를 강간, 9월 29일 검거 헌병대 인계
- 11. 21 02:00경 피의자 김모(18세), 김모(19세)는 고성읍 무량리 농로에서 부산 사하구 소속 영업용 택시 운전자 김모(34세)를 과도로 찢러 74,000원을 강취하고 높이 1m 수로에 던져 살해코자 했으나 전치 3주 상해를 가함(1986년 2월 23일 검거)
- 11. 22 18:00경 구만면 효락리에서 최 모(72세, 무직)가 처인 피해자 조 모(71세)를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일을 하고 있던 낮으로 귀 부분을 찢러 사망
- 11. 23 17:00경 하일면 송천리 이○한(30세), 정○정(31세, 여) 부부가 자기 소유 미성호(0.5t)로 외도 근해에서 조업타가 기상악화로 귀항 중 심한 풍랑으로 선실에 물이 넘어 들어가 침몰, 남편은 구조되고 처는 실종

1986년

- 3. 20 22:00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신도여관 101호에서 피의자 김모(35세), 김모(27세), 장모(28세)를 검거하고 피해품 영남전집 34건 외 466점, 병풍 1, 목각판 63장, 고서 퇴계집 450건 압수
- 5. 4 22:00경 거류면 용산리 앞 동외산에서 피의자 김모(30세, 고성읍 월평리)가 피해자 도모(51세, 여)를 1회 강간 및 현금 47,000원 강취, 형사비상소집검거
- 9. 4 16:50경 하이면 월흥리 신흥마을 조○길(44)의 논에서 농약을 치던 이 마을 이○웅(45)이 감전되자 논주인 조○길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두 사람이 함께 사망, 또 이들을 구하러 들어갔던 이○웅의 부인李향숙(26)과 이웃주민 이강춘(28)도 감전으로 다쳐 삼천포 성심병원에 입원치료
- 12. 2평화의 댐 건설 성금 전달 132,000원(1인 1,000원)

1987년

- 1. 5 02:55경 하이면 덕명리 돌바위 초소에서 육군 117연대 2대대 소속 덕명 초소 근무 방위병 이모(21세)가 2대대 소속 돌바위 초소 근무 방위병 정모(21세)에게서 M16 소총 1정, 실탄 15발을 탈취해 간 것을 덕명초소 분초장이 탈취자는 근무일이 아닌데도 돌바위 초소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M16소총과 실탄 15발을 가져가는 것을

03:50경 발견 검문 회수

- 3. 2 16:00경 삼산면 삼봉리 하촌부락 앞 밤섬(무인도)에서 간조로 조개 채취차 가다가 미상의 폭발물이 폭발, 삼봉리 차○용(14세, 중 1년) 사망 외 이○경 (13세, 국 6년) 2주 부상, 이○원(17세, 철성고 1년) 4주 부상
- 3. 28 경찰서 경승위원 4명 최초 위촉
- 8. 28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사망 8. 22) 장례운구상황대비, 고성경찰서에 지휘본부 설치, 전국 20여 개 중대 2,000여 명 경력배치
- 10. 17 18:30~익일 07:30 사이 개천면 옥천사 내에서 의상대사 초상화 외 2점(시가 40만 원 상당) 도난
- 11. 7 09:00~17:00경 회화면 당항포 국민관광휴양지에서 고성 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하는 평화통일기원 및 호국영령위령제, 88올림픽 원만성취, 만등대법회를 허문도 통일위원장 외 3,000여 명 참석하여 개최(혼잡경비(21/107))

1988년

- 2. 27 02:00경 고성읍 신월리 현대주유소에 피의자 백모(20, 방위병)가 침입, 당직근무 중이던 신모(20세)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며 위협, 현금 334,000원을 강취하여 도주하다 봉고트럭 운전기사에게 검거됨
- 6. 10 13:00경 영오면 오서리 조모(63세, 여)家 헛간 내에서 피의자 정모(31세, 땅꾼)가 1983년 8월부터 1988년 6월까지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을 때 처 서모(29세)와 피해자 김모(41세, 땅꾼)가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싸우다 삽으로 내리쳐 피해자 사망
- 7. 7 13:30~21:40경 고성읍 동외동 주차장 일대에서 택시기사 40여 명이 고성 공용 정류장 신축 개설 운영에 따른 택시 주차장 출입문 폐쇄조치에 항의, 경찰에 돌멩이·화염병 등을 투석 과격한 행동을 하여 화학탄 사용 진압
- 12. 30 20:50경 삼산면 두포리 덕산부락 입구 도로상에서 피의자 강모(23세, 무직) 외 1명이 피해자인 택시기사 김모(38세)를 과도로 위협하여 현금 59,000원을 강취, 피해자를 결박하여 트렁크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 피의자 중 1명이 운전 그곳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상리면 부포리 소재 양어장 옆 도랑에 동 차량을 넘어지게 하여 방치하고 도주(1989. 1. 16 검거)

1989년

- 1. 17 20:15경 35세 가량의 피의자가 삼산면 장치리 장치고개중턱 도로상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자 피해자는 피해품을 두고 도망, 피의자는 택시를 몰고 도주(1989. 1. 23 진주서 검거)
- 1. 19 어선신고소(남포, 두포, 하촌, 덕명, 맥전포, 외산, 우두포) 해경(충무지구대) 인계
- 2. 13 16:00 삼산면 두포리 포교부락 방면 도로변 숲속에서 피의자 정모(31세, 어장망인부)가 피해자 이모(15세, 여)를 위협 강간
- 3. 2 동해면 거주 피의자 전모(25세, 무직)는 생면 부지한 하일면 거주 피해자 강모(32세, 여)에게 5~6회 가량 전화로 만나자고 유인하여 2월 20일 오후 3시경 고성읍 선학장여관에서 1회 간음 정을 통하고 이를 미끼로 피해자의 5돈 중 금팔찌 1개(시가 30만 원 상당)와 은목걸이 1냥(시가 25,000원 상당), 현금 20만 원 등 도합 525,000원 상당을 갈취
- 5. 26 16:30경 거류면 감서리 피의자 이모(66세, 남)의 집 마당에서 같은 동네 거주 피해자 장모(40세, 남)와 피의자의 4촌 동생인 이모(40세, 남) 등이 소주를 먹던 중 이모와 시비가 붙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이모로 착각하여 부엌칼로 옆구리를 찔러 출혈성 쇼크로 사망
- 10. 31 부산시 진구 범천동 거주 피의자 신모(18세, 남)는 벌떼 미드나이트클럽에 일하면서 피해자 이모(16세), 박모(16세)양을 부산에서 유인하여 하일면 소재 우정싸롱 업주 박모(38세, 남)에게 피해자 1인당 50만 원 도합 100만 원 요구하며 매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너무 어리다면서 이를 거절, 미수에 그치고 다른 장소를 물색 중 업주가 하일지서에 신고 검거
- 12. 29피의자 김모(37세, 특수절도 11범), 신모(30세, 특수절도 5범)가 염소 5두, 개 2두 85만 원 상당을 절취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이동 중 구만지서에서 발견, 회화지서에 통보, 경장 제정우 외 5명 검문 중 차량으로 정면돌진 마산 방면으로 도주한 것을 진전지서 앞에서 검거

6. 경찰청 시대

1) 경찰청 출범과 고성경찰

1990년 고성경찰은 128명(정원 134명)이었으며, 전의경 26명(정원 27명)이 치안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다. 1990년대 들어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기동화광역화되어 갔다.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고, 신속한 출동과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C3 순찰차량은 1990년 성

내파출소와 회화파출소에 처음 운용되었다. 1991년 5월 경찰의 현실을 반영한 현행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 동년 8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경찰의 숙원이었던 경찰청이 정식 발족되었다. 경찰청 독립 개청과 함께 고성경찰서는 5개과(경무, 수사, 방법, 경비, 정보과)와 12개계, 14개 파출소, 2개 출장소 체제로 운영되었다. 1992년 12월 회화파출소 관내 회화검문소가 준공되었고, 낙도의 치안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1994년 들어 와도출장소를 폐지하고 이어 1997년에는 자란도 출장소를 폐지하였다. 한편, 1997년에는 C3 순찰차량은 112순찰차로 명칭을 변경하여 모든 자파출소에 배치되었다.

1998년 2월 10일 고성읍 동외리 157-2번지에 경찰서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유지되었던 성내동 시대를 마감하고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9년 6월에는 부당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청문감사관실이 신설되고, 그동안 비중이 컸던 경마보안은 기구가 축소되어 정보보안과에 통합하였다.

주요 연표(年表)

1990년

- 1. 18 22:10경 삼산면 판곡리 속칭 갈망개고개 길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강모(21세, 여 은행원)와 최모(29세, 남 은행원)가 데이트 중인 것을 20~23세 가랑 남자 2명이 최모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강모의 양손을 어망노끈으로 묶어 두고 현금 25,000원과 자동차 열쇠를 강취 도주(미검)
- 7. 16 01:40~02:00경 고성읍 소재 ○○나이트클럽 3호룸에서 피의자 김모(28세)가 피해자인 택시운전사 황모(28세)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같은 날 02:55경 마산 현동 검문소에서 검거)

1991년

- 12. 5 00:20경 육군 모부대 소속 방위병 서○식(21·영오면 오동리), 서모(19·영오면), 김○윤(23·진양군 금곡면 죽곡리) 등 3명이 영오면 ○○고등학교 1층 도서실에 침입, 공부를 하고 있던 이 학교 사양(17·고2) ○양(16·") 초양(17·") 등 여고생 3명을 깨진 유리병으로 위협해 2백m쯤 떨어진 하천둑 옆 비닐하우스 안으로 납치, 김○윤이 사양을 강간

1992년

- 12. 18 16:10경 고성읍 성내리 대성국교 제1투표구에서 민자당 선거운동원 최모(66, 여)가 같은 마을 임○달(56)의 투표통지표로 대리투표를 하다 민주당 참관인 신성진

(20)에게 적발된 것을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

1993년

- 3. 4 12:40경 최○홍(34경남 충무시 북신동)이 고성읍 박 모(31)의 집에 “새시문을 설치하러 왔다” 고 속이고 들어가, 혼자 집을 보고 있던 박씨의 부인(27)을 흥기로 위협해 안방 등에서 현금 24만 원을 빼앗고, 출산을 나흘 앞둔 박씨의 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알몸사진을 찍어 10일 뒤인 박씨 집에 전화를 걸어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 며 협박
- 8. 24 13:00경 강○○(30여주부)이 하이면 덕호리 집 부엌에서 옆집에 사는 文○○양(3하이면 덕호리)을 살해한 뒤 토막내 집 헛간 싱크대 속에 유기
- 11. 25. 14:55경 회화지서(지서장·손영일 경사50)내에서 배○한(23) 순경이 장난삼아 쓴 38구경 리볼버 권총에 맞아 회화면대 소속 방위병 김○○(22·회화면 어신리) 이병 사망

1994년

- 11. 8. 19:20경 피해자 김○○(51세, 여)은 고성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남편 등 가족과 함께 저녁밥을 먹은 뒤 남편이 있는 축사로 나간 뒤 다음날 07:00경 근처 폐쇄된 공장 내 2평 크기의 빈방에서 상하의 옷이 벗겨진 채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미제)

1997년

- 6. 21. 23:00경 사천 선적 7.3t급 어선 13금택호(선주 이某, 43세)와 동급 제2한진호(선주 김某, 40세)는 통영시 옥지면 세존도 앞 해상에서 名 불상의 중국 선박으로부터 조선족 52명을 넘겨받아 6월 23일 오후 8시 20분경 하일면 동화리 선착장에서 밀입국 시키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전원 검거됨

1999년

- 2. 20 피의자 이某(35세)는 고성읍 정미소 종업원으로 종사할 당시 백미 6가마를 훔친 사실로 인해 해고당한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정미소에 침입하여 경유기름을 쌀가마에 뿌리고 라이트로 불을 붙여 정미소 등 내부시설 등 도합 시가 3,600만 원 상당을 태워 소훼
- 4. 4 피의자 이某(47세)는 명성여관에 손님을 가장하여 투숙한 후 미리 소지한 횃칼로 주인의 옆구리에 갖다 대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폭행하고 항거 불능케 한 후 손발을 노끈으로 결박하려고 할 때 피해자인 주인이 손발을 묶으면 안내

실에 있는 금고를 열 수가 없다고 하며 안내실로 유인하는 척하면서 도망쳐 미수에 그쳤으나 폭행으로 인해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과 타박상을 가함

- 8. 16 피의자 류모(16세)는 피해자 이모(27세, 여)가 남편이 출근하고 생후 5개월된 딸과 함께 집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면을 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칼로 위협, 1회 강간 및 현금 12만원을 강취하는 등 전후 8회에 걸쳐 특수강도, 강간,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을 검거 구속
- 12. 814개 파출소 2부제 전면시행, 전일제 → 2부제(월 450시간 → 360시간 : 1일 12시간)
- 12. 10 경찰행정개선위원회 발족

2) 2000년대 경찰

2000년은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이 전개된 해이다. 개혁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1999년 12월 2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 5회에 걸쳐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추진을 위한 직원 교양 및 토론회 등을 4회 실시하고 ‘새천년맞이 거듭나기’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수사직무교육을 개설하여 당시 파출소 경찰관 82명 중 경력(經歴) 2년미만 41명(50%)에 대해 수사서류 작성 능력향상을 위한 주 1회 가상과제 부여실습, 월 1회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0년 1월 3일 고성경찰 소개, 서장과의 대화 등 20개 코너를 개설하여 고성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월 15일에는 고성경찰 소식지를 매일 1회 발간하여 경찰의 변화된 모습과 지역치안 상황, 민원 안내 등을 실어 홍보하였다.

2000년 6월 구만개천파출소를 분소로 전환하였고 2003년 10월 15일 12개 파출소와 2개 분소를 권역별 4개 지구대로 개편 운영하였다.

2003년에는 경무계장, 생활안전계장, 감찰담당 등 중요보직에 ‘보직공모제’와 ‘다면평가제’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등 조직의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찰청 주관 ‘2003년도 앞서가는 경찰관서 평가’ 전국 5위를 차지하였다.

2004년 1월 방법기능 명칭을 생활안전계, 생활안전교통과로 변경하였다. 2005년 1월 생활안전교통과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하였고, 2006년 7월 19일 광역유치장 시행으로 경찰서 유치장을 통영경찰서로 이관 경찰관 2명을 파견하였다.

2006년에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61회 실시하여 경찰청 실시 교통안전순회교육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명이 특진하는 영예를 누렸다. 이외에도 15개소에 대한 시설보안과 홍보활동80회를 병행하였다. 검문의 효율화를 위해 ‘탑재형 차량자동판독기’ 3대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한편, 보일러 연료를 부생연료인 ‘하이신

’으로 대체 사용하여 연료비를 절감(2년간 1,490만원)한 것은 2006년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주요 연표(年表)

2000년

- 1. 18 피의자 임 모(43세), 안 모(40세)는 2000년 1월 18일 고성읍 송학리 건설자재 야적장에 쇠시슬을 절단하고 침입, 야적장에 보관해둔 합판 700여 장을 절취하는 등 전후 8회에 걸쳐 11,31만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절취
- 3. 15 피의자 정 모(24세)는 2000년 3월 15일 회화면 배둔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정 모(65세)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가슴과 복부를 발로 차 다발성능 골골절, 우폐간우엽파열, 흉강복강 내 출혈상으로 사망
- 3. 31 피의자 전 모(40세), 전 모(42세)는 형제지간으로 전기수리공을 가장하여 삼산면 소재 피해자 곽 모(48세)집에 침입하여 방 장롱 서랍 속에 있던 현금 250만 원 및 귀금속 등 334만 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전후 16회에 걸쳐 현금, 수표, 귀금속 등 13,00만원 상당을 절취
- 4. 2 피의자 허 모(33세)는 회화면 배둔리 소재 60대 노부부가 거주하는 가정집에 복면을 한 후 칼을 들고 침입, 피해자 부부를 위협하여 현금 12만 원을 강취하고 식칼을 휘둘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5. 23 하일면 수양리 이某的 집에서 부인이 술취한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헛간에 걸려 있던 낫으로 남편의 좌측 후두부와 좌측 대퇴부를 내리 찍어 살해
- 9. 11 피의자 차 모(21세, 남)는 고성읍 송학리 소재 ○○여관에 투숙한 다음 근처 다방에 차를 주문한 후 배달 온 다방 종업원 피해자(18세, 여)를 위협, 손지갑 속에 든 115,000원을 강취하고 1회 강간하는 등 전후 2회에 걸쳐 다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강도, 강간

2001년

- 3월경 피의자 이 모(49세)는 삼산면 소재 피해자(82세, 여)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돈 2만 원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절취
- 3. 16 피의자 문 모(64세)는 하이면 소재 자신이 경작하는 논문제로 피해자 김모(66세, 남)와 다툼으로 인해 욕설과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로 흉부를 1회 찔러 살해

- 5. 8 피의자 강 모(40세, 남)는 동해면 소재 멸치액젓공장 종업원인 피해자 김모(46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액젓 숙성저장고에 밀어 넣어 뚜껑을 덮고 양수기 2대를 올려놓아 나오지 못하게 한 뒤 창고 출입문을 잠가 질식 살해코자 하였으나 12시간이 지난 이후에 피해자의 딸(11세)에게 발견되어 구조
- 6. 1 피의자 배 모(46세)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최 모(36세, 여)가 자신에게 구타를 당한 뒤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집을 처분하겠다고 하는데 앙심을 품고 외사촌 동생인 피의자 이 모(44세)를 사주하여 피해자 에게 집을 주어 위해를 가하여 달라고 범행을 교사하여, 피의자 이 모(44세)는 피의자 김 모(44세)와 합동으로 하일면 소재 피해자의 2층집에 침입 전화선을 절단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동거남을 손도끼로 위협하여 안방 옷장 장롱을 뒤져 귀금속 등 시가 187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성추행하고 피해자와 같이 있던 동거남이 결박을 풀고 대항하자 식칼과 손도끼를 휘둘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2001. 6. 18경찰행정개선위원회를 “경찰행정발전위원회” 로 명칭 변경

2002년

- 2. 26 피의자 박 모(31세)는 삼산면 소재 개인 소유 밭에서 정월대보름 달집놀이를 하던 피해자(9세, 여)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
- 5. 23 피의자 황 모(32세)는 교도소에서 출소 후 마암면 소재 피해자 정모(82세, 여) 집에 침입, 현금 33만 원을 강취하고, 전치 2주간의 상해를 가함
- 6. 12 피의자 K 모(40세) 등 9명은 제3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02년 5월경 고성군 ○○면 소재 식당 내에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동년 6월경 선거사무원으로 하여금 선거구 관내 선거인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을 살포할 수 있도록 820만 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 선거인을 대상으로 2,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
- 7. 28 피의자 김 모(38세)는 농협 직원으로 채용되어 대출업무를 담당하다가 면직된 자로 재직 당시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거액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친구 명의로 허위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
- 10. 4 21:50 경 피의자 정 모(30세)는 영현면 소재 피해자 강모(66세, 여)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옆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40m 떨어진 피의자의 집 뒤쪽 개울로 끌고 가 식칼을 이용하여 목과 양

팔, 양다리 등 6토막으로 절단하여 사체를 손괴,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야산 3곳에 구덩이를 파고 사체를 매장하여 유기

- 11. 19 피의자 허 모(39세)는 고성군 소재 한센병 환자 거주촌 ○○의무실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2002년 1월 2일부터 2002년 11월까지 환자 389명에게 1,267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여 검거됨

2003년

- 1. 27 피의자 정 모(34세)는 고성읍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사건 전날 양가 식구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의자의 처인 피해자 이모(30세, 여)가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장대 유리를 깨어 유리조각으로 왼쪽 얼굴을 2회 긁고, 머리를 찢러 전치 4주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함
- 2. 27 피의자 이 모(33세)는 하이면 소재 피의자의 집 안방에서 母 김 모(71세)가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 부분을 오른발로 1회 차 전치 12주의 흉추압박골절상을 가하고, 같은 해 3월 29일경 피의자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버린다” 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 6. 18 피의자 이 모(43세)는 동해면 소재 피해자 이 모(54세)가 경영하는 식당 앞 공터에서 술 마시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서로 다투다가 왼쪽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낫길이 12cm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좌측 눈 위를 물어뜯었으나 종업원에게 발견되어 피해자를 병원 후송하여 살해 미수에 그치고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함
- 9. 13~27태풍 ‘매미’ 피해 복구 총력지원, 침수지역 주민대피 등 인명구조 5건 21명, 복구활동 14회 150명, 수해의연금 모금기탁(마산MBC 83만 원)
- 11. 5 19:30경 피의자 이 모(78세)가 거류면 소재 자신의 아들의 집에서 정신장애 1급 장애아인 손녀(10세)에게 극약을 먹여 살해

2004년

- 1. 18 피의자 최 모(48세)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천 모(43세)의 언니에게 3년 전 빌려준 4천만 원을 겁을 주어서라도 받아낼 목적으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리터를 구입하여 동해면 소재 피해자 소유 ○○횃집 내실 로 가져가 뿌린 다음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시가 270만 원 상당 소훼
- 4. 20 피의자 양 모(21세)와 양 모(24세)는 자매지간으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1년 11월 5일경 고성읍 소재 피해자 문모(33세, 남)가 경

- 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50만 원 편취하는 등 전후 3회에 걸쳐 1400만원 편취하여 검거됨
- 5. 8 삼산 병산 주민 ‘이타이타이病’ 발병의심 관련 마창환경운동연합과 창원 KBS가 공동으로 폐광 오염실태를 조사하면서 삼산제일광산 인근 병산주민 7명의 인체 내 중금속 축적도 검사를 실시, 6명의 인체내 카드뮴 축적도가 기준치(5ppb)보다 높아 대표적 공해병인 ‘이타이타이病’ 발병이 의심된다는 것을 발표
 - 6. 30 피의자 박 모(45세), 이 모(50세)는 폐기물 매립허가를 받거나 승인 없이 2001년 7월 21일부터 같은 해 8월 7일까지 대가면 소재 공장부지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2,442톤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검거됨
 - 8. 28 피의자 김 모(46세)는 동해면 소재 도로상에서 포장마차 장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서 전기를 끌어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기물 등 도합 50만 원 상당을 파손하고, 피해자와 처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회화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 53만 원 상당을 손괴

2005년

- 전국무대 추레라 전문 절도단 검거 [구속 3명(불구속 3명), 추레라 10대 등 2억 2천만 원 회수]
- 3. 17 피의자 손 모(50세)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2004년 11월부터 12월 초순경까지 회화면 소재 피해자 이 모 씨(58세)가 운영하는 식당 1층 방에서 2회에 걸쳐 20만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문의약품인 트라암시놀론에 증류수를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위 피해자의 배꼽 하복부에 각 10여 회에 걸쳐 투여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합병증 등으로 병원치료 중 사망
- 4. 11 피의자 김 모(39세, 남)는 피해자 김모(43세, 남)에게 감정을 품고 자신의 집에 있는 작두날(날길이 54cm)을 집어 들고 거류면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15세)에게 “아버지 찾아와라” 며 작두날을 휘둘러 협박하고, 작두날로 현관 출입문 기둥과 거실 바닥을 내려쳐 5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 9. 25 피의자 이 모(35세)는 여관에 투숙한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다방에 전화를 걸어 커피를 주문하여 배달 온 여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고 도망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 10. 19 피의자 백 모(45세)는 피해자의 이모로부터 수도꼭지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도꼭지를 고치러 갔다가 피해자(15세, 여)가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알몸상태로

작은방으로 들어갈 때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강간

2006년

- 3. 26 피의자 최 모(78세)는 하일면 소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인 처를 17회 가랑 과도로 찢러 살해하여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밀쳐 바깥으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친 것임
- 4. 14~6. 4 2006년 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
 - 1) 경찰인력운영 : 3,620명(경찰 1,560명, 잔의경 2,060명)
 - 2) 경찰활동 : 행사장 내 엑스포파출소를 운영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 행사장 일원 CCTV 설치와 주요 교차로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하여 원활한 교통관리
- 7. 11 태풍 ‘에위니아’ 피해(7. 10) 관련 주민봉사활동 실시(5개소 15일간)
- 11. 17 피의자 허 모(47세)는 고물수집상으로 회화면 소재 피해자의 3층 집에 침입하여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13세, 여)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후 1회 강간

2007년

- 4. 13 05:00경 피의자 김 모(29세), 신 모(40세)는 피해자 김 모 씨(47세)를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 쪽으로 끌고 가 강제로 태운 다음 강간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바닷가로 가던 중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속도가 줄어드는 틈을 이용 피해자가 피의자를 뿌리치며 차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인근의 청소차량 운전자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함
- 4. 21 19:20경 피의자 황 모(64세)는 회화면 소재 사건 외 권 모(74세)의 집 마당에서 권 모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 천 모(65세)를 지칭하며 흥을 보고 있을 때 옆에서 내용을 들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어내자 피의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실랑이를 하면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시멘트로 된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임

2008년

- 2. 27 피의자 황 모(43세, 남)는 고성군 소재 수협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1년 5월 7일부터 2002년 5월 9일까지 근무하면서 조합원들로 부터 선수품(피조개, 망, 부자, 그물, 로프 등 물품) 대금으로 받은 2억원 상당의 공금을 보관 중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여 검거됨
- 4. 21 20:00경 하이면 와룡리에서 피의자 박모(67세)가 자신의 모 이 모(87세)와 딸다툼을 한 후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구타하여 살해

2009년

- 1. 18 12:20~16:00경 피의자 라시카(29세)는 외국인 근로자로 동해면 소재 원룸에서 같은 국적인 피해자 디누스를 목 졸라 살해
- 3. 27~6. 7 2009년 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
 - 1) 경력운용 : 2,385명(경찰 441명, 전의경 1,944명)
 - 2) 경찰활동 : 행사장 입구 엑스포 파출소 운영(경찰 1, 대원 6) 및 1,600명의 협력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미아보호 및 습득물 등 256건을 처리
- 5. 14 15:00경 피의자 백 모(51세, 남, 운전업)는 피해자 최 모(40세, 여)와 연인으로 지내왔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체사진 3매를 전송한 후 만나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고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50분가량 감금
- 9. 18 전국 최초 전의경 무사고 10주년 달성

3) 2010년대 경찰

2010년 들어 고성경찰은 다양한 기능의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우선, 수사기능에서 4월과 8월 절도범검거 실적 평가 도내 3급지 최우수 포도팀과 포도왕에 선정되었다. 교통기능에서도 음주교통사고 감소율 도내 1위를 차지하여 관서표창을 받고 원스톱 원동기 운전면허 시험실적도 10회에 걸쳐 217명에 실시함으로써 도내 1위를 차지하였다.

2011년에는 ‘10-10치안활동’ 을 추진하였다. 기능별로 좋지 않은 것은 10%줄이고 좋은 것은 10% 향상시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교통사고 10% 줄이기, 주행속도 10% 향상, 절도 사건 10% 줄이기, 검거 10% 향상, 에너지 10% 줄이기, 치안만족도 10% 향상, 불법집회 10% 감소, 상황(대테러) 대응능력 10% 향상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에는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여 추진한 ‘5대 폭력사범 단속’ 도내 3급지 1위, 학교 폭력 체감안전도 도내 2위를 차지하였다.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해 방범용 CCTV(7개소, 13대)와 마을단위 CCTV(46개소, 136대)를 증설하였다. 한편, 2012년 8월부터 각 경찰서의 112신고접수 업무는 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112종합상황실도 정보보안과 경비계에서 생활안전계로 이관되어 신속한 신고지령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경찰종합상황실이 생활안전 소속으로 이관된 것은 그동안 작전개념으로 운용되던 상황실이 민생치안기능으로의 변동을 의미한다.

2013년 2월부터 범죄예방과 피해자관리까지 총역량을 결집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전기능이 참여하는 ‘4대약근절 추진본부 T/F팀’ 을 구성, 집중추진한 결과 상반기평가에서 도내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2013년 11월 28일 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계 1개 반으로 운영되던 여성청소년담당 업무는 계(係)로 분리 독립하였다.

주요 연표(年表)

2011년

- 7. 1 01:00경 피의자 천 모(40세, 남)는 동해면 소재 피의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천 모(46세, 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식칼로 가슴, 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 피해자의 복부를 갈라 장기를 뜯어내고 대퇴부와 코를 베어내는 등 손괴한 후 집 앞 소하천에 사체 유기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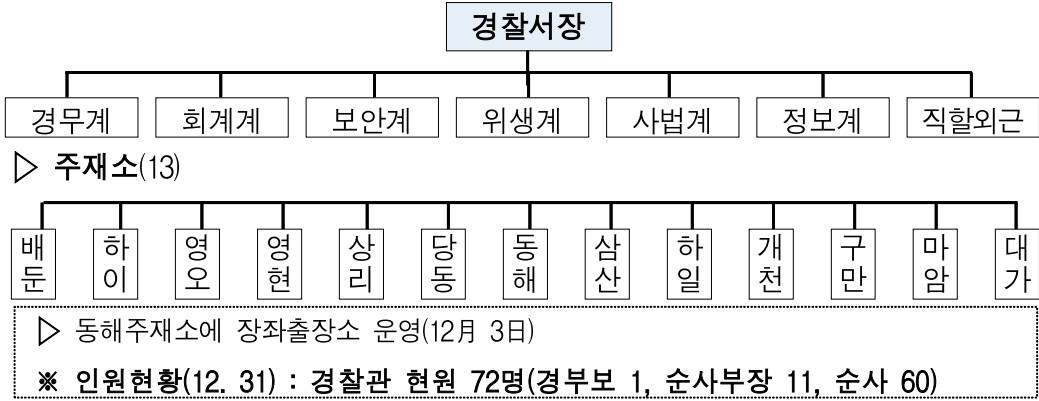
- 3. 30~6. 10 2012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 1) 경찰인력운영 : 1,656명(경찰 561명, 전의경 1,095명)
 - 2) 경찰활동 : 엑스포 파출소를 운영(경찰 1, 대원 4) 행사장 일원 집중 순찰을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기여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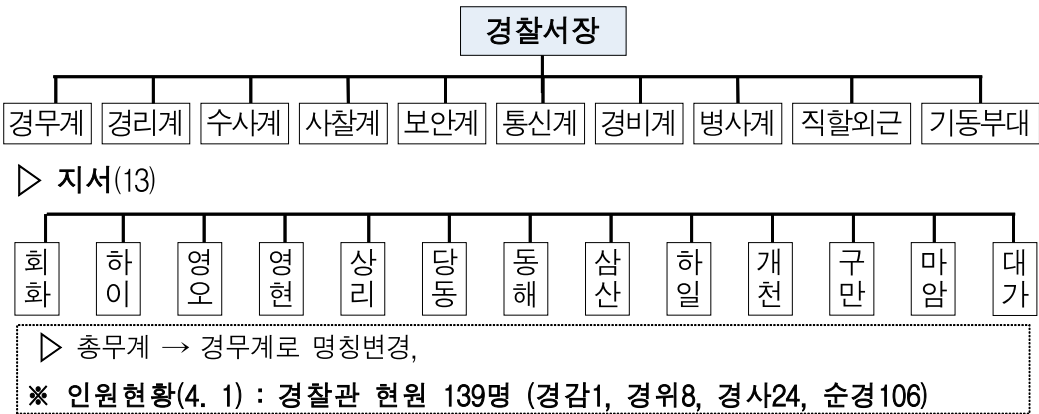
- 2. 20 02:20경 송모(55세, 무직, 김해 거주), 정모(61세, 창원 거주)는 공모 합동하여 영오면 소재 피해자 허某的 시정된 농가 창고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1톤 포터 차량으로 도정되지 않은 벼(40kg) 100포대 시가 600만 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경남북, 전북 장수에서 차량 2대 및 도정되지 않은 벼 약 600포대 등 시가 6,000여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성모(32세, 정미업)는 총 9회에 걸쳐 절취된 농산물을 매입한 것임
- 5. 19 12:30경 피의자 김 모(59세)는 친동생인 피해자 김모가 어머니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회화면 봉동리 주거지 마루에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약 10여회 내려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만류하는 어머니(86세)의 등 부위를 손도끼로 내려쳐 상해를 가함
- 6. 29 12:30경 강모(63세, 남)는 고성읍 송학로 피해자 김모(76세, 여)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밀쳐낸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겨드랑이를 4회 찔러 살해

제 3절 고성경찰서 조직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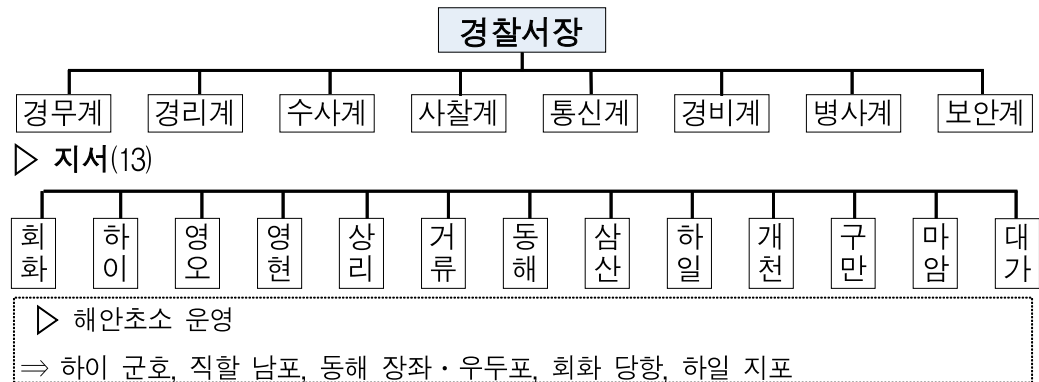
◇ 194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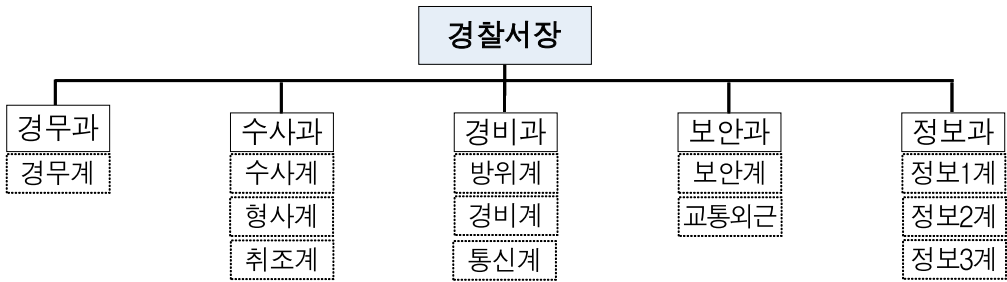
◇ 19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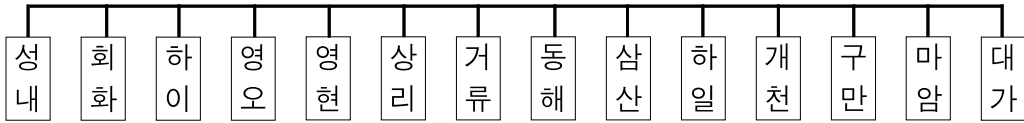
◇ 1960년



◇ 19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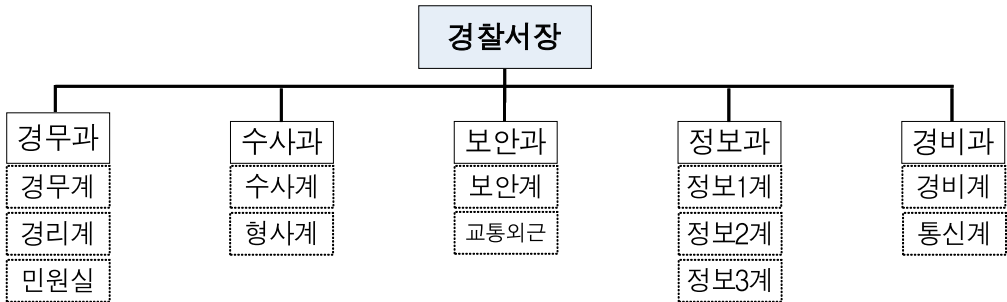
▷ 성내파출소, 지서(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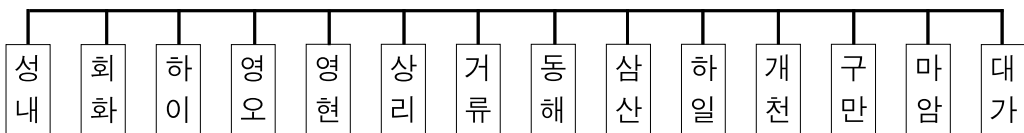
▷ 경비과 외근담당, 소수정(학생, 동해, 거류, 하일호), 정보과 외사, 북한반

※ 인원현황 : 경찰관 현원 148명(총경1, 경감1, 경위8, 경사22, 경장31, 순경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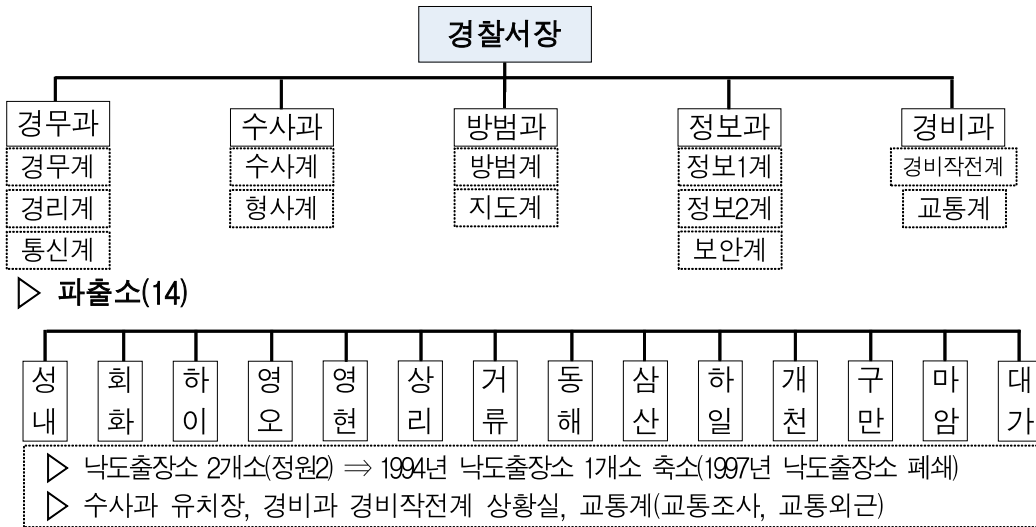
◇ 198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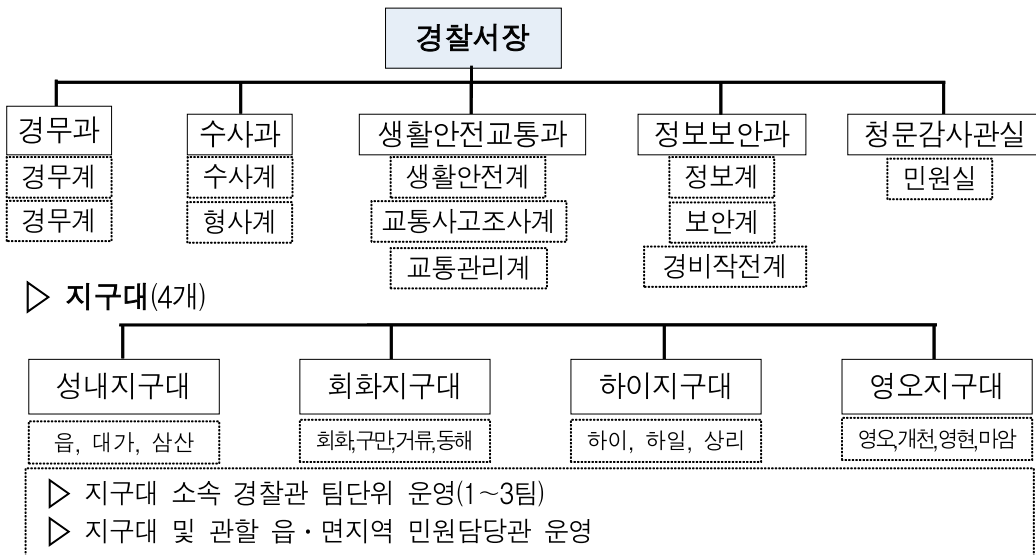
▷ 성내파출소, 지서(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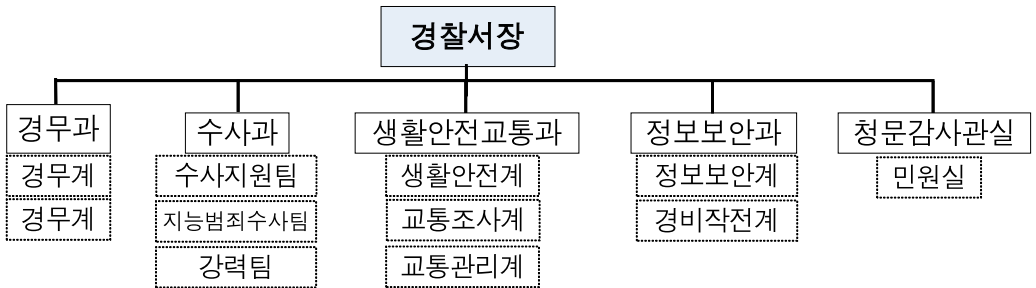
◇ 19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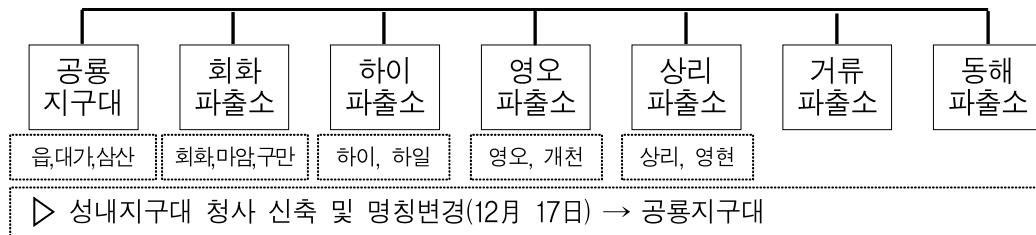
◇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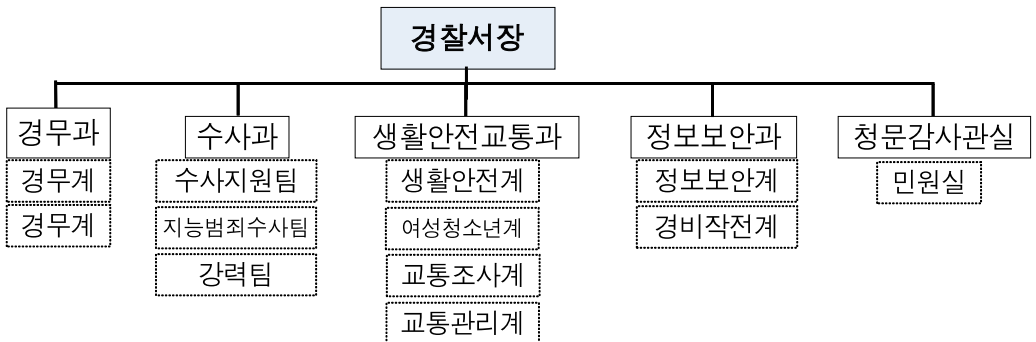
◇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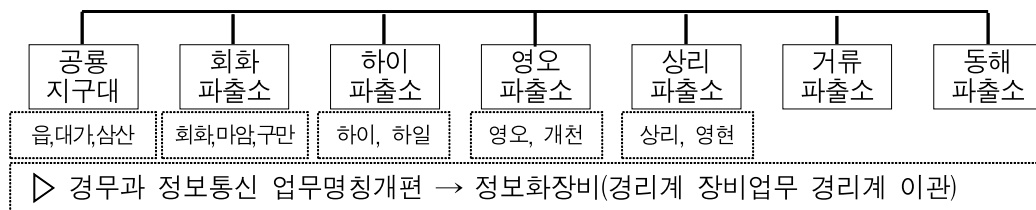
▷ 지구대 · 파출소(지구대1, 파출소6)



◇ 2013년



▷ 지구대 · 파출소(지구대1, 파출소6)



4절 역대 경찰서장 재임기간

1대 경감 辛泳柱 1945.11.13~1946.10.25.	32대 총경 文明湖 1980.11.13~1981.11.26
2대 경감 李圭善 1946.10.25~1947.11. 8	33대 총경 金大柱 1981.11.26~1982. 6. 2
3대 경감 昔佑烈 1947.11. 8~1948. 3.20	34대 총경 金成保 1982. 6. 2~1982. 6. 9
4대 경감 李燦性 1948. 3.20~1949. 6. 8	35대 총경 黃雲世 1982. 6. 9~1982.12.27
5대 경감 金基活 1949. 6. 8~1950. 5.10	36대 총경 吳奉得 1982.12.27~1983.12.12
6대 경감 孫述祖 1950. 5.10~1950.10.20	37대 총경 全鐘宣 1983.12.12~1985. 3. 4
7대 경감 禹判鎬 1950.10.20~1951. 8.25	38대 총경 李鐘泰 1985. 3. 4~1986. 7.28
8대 경감 金甲龍 1951. 8.25~1952. 4. 5	39대 총경 朴材主 1986. 7.28~1988. 6. 2
9대 경감 李重信 1952. 4. 5~1953. 1. 3	40대 총경 裴熙善 1988. 6. 2~1989. 9. 3
10대 경감 禹判鎬 1953. 1. 3~1953. 1.29	41대 총경 朴斗七 1989. 9. 3~1991. 1. 3
11대 경감 蔡伊錫 1953. 1.29~1953.10. 3	42대 총경 朴在浩 1991. 1. 3~1992. 7.29
12대 경감 鄭壽煥 1953.10. 3~1954. 3.10	43대 총경 金在東 1992. 7.29~1993. 5. 1
13대 경감 朴在元 1954. 3.10~1954.10. 8	44대 총경 李鍾吉 1993. 5. 1~1994. 6. 3
14대 경감 宋相基 1954.10. 8~1955.12.18	45대 총경 尹 翊 1994. 6. 3~1995. 1.24
15대 경감 金載裙 1955.12.18~1958. 3.15	46대 총경 裴武鍾 1995. 1.24~1995.12.20
16대 경감 李華植 1958. 3.15~1958. 6.18	47대 총경 梁 革 1995.12.20~1997. 1.11
17대 경감 崔哲鎬 1958. 6.18~1959. 4.20	48대 총경 金相奐 1997. 1.11~1998. 3.24
18대 경감 金碩秀 1959. 4.20~1960. 5. 9	49대 총경 裴建壽 1998. 3.24~1999. 7.17
19대 경감 金東佑 1960. 5. 9~1960. 7.31	50대 총경 金鍾陽 1999. 7.17~2000. 7. 5
20대 경감 李居洛 1960. 7.31~1960. 9.27	51대 총경 朴点煜 2000. 7. 5~2001. 7. 1
21대 경감 洪在殷 1960. 9.27~1961. 6.23	52대 총경 崔泰榮 2001. 7. 1~2002. 7.14
22대 경감 金南振 1961. 6.23~1961.10. 4	53대 총경 金忠圭 2002. 7.14~2003. 7.17
23대 경감 曹程純 1961.10. 4~1963. 8. 1	54대 총경 趙廷來 2003. 7.17~2004. 7. 9
24대 경감 朴英吉 1963. 8. 1~1967. 9.19	55대 총경 金哲準 2004. 7. 9~2005. 4. 6
25대 경감 金肯煥 1967. 9.19~1969. 1.15	56대 총경 金綠凡 2005. 4. 6~2006. 7.13
26대 총경 韓德俠 1969. 1.15~1971. 9.18	57대 총경 鄭東贊 2006. 7.13~2008. 3.24
27대 총경 曹性奎 1971. 9.18~1973. 6.27	58대 총경 李魯九 2008. 3.24~2009. 3.23
28대 총경 李應燾 1973. 6.27~1975. 9.26	59대 총경 全俊鎬 2009. 3.24~2010. 7. 1
29대 경정 金丁泰 1975. 9.26~1979. 2.20	60대 총경 金昌圭 2010. 7. 2~2011.12.21
30대 경정 錢柄翊 1979. 2.20~1980. 7.22	61대 총경 朴在鍊 2011.12.22~2013. 7. 4
31대 경정 李承萬 1980. 7.22~1980.11.13	62대 총경 金正完 2013. 7. 5~2014. 7. 4